

(2) 아세아극장

□ 위치



현 아세아극장(1986년 개헌현판식, 4·5대구민중투쟁)

□ 역사적 의의

1986년 직선제 개헌추진대회

(3) 만경관 극장앞 도로

□ 위치



현 만경관극장 앞 도로

□ 역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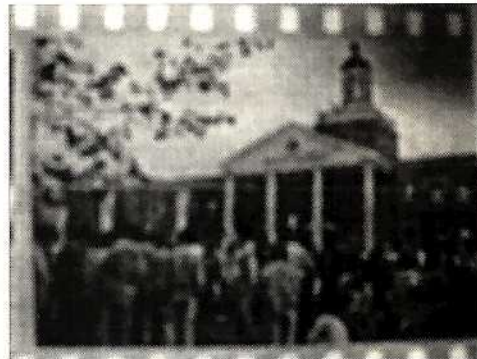
1961. 5.11. 대구지역 학생 등 남북학생회담지지대회 후 침묵데모 행진

(4) 계명대 빌라도광장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



6월민주화항쟁 당시 노천강당



계명대 민주운동의 상징인 빌라도광장

□ 역사적 의의

- 1964. 3.26. 강당, 한일회담에 대한 공개 토론회 개최
- 1964. 6. 5. 강당, 한일회담 관련 긴급 학생총회 개최
- 1967. 6.16. 빌라도광장, 6·8부정선거 규탄 성토대회 개최
- 1967. 7. 3. 빌라도광장, 6·8부정선거규탄 경북학생투쟁위원회 결성
- 1969. 6.27. 빌라도 광장, 삼선개헌 반대투쟁 전개
- 1969. 7. 8.~10. 빌라도광장, '3선음모 합법이고 헌정수호 불법인가'라는 현수막 들고 시위.
- 1969. 9. 5. 빌라도 광장, '마우(馬牛)대학생'이라 쓴 허수아비 화형식을 가진 후 삼선개

헌 반대 시위 전개.

- 1969. 9. 6~9. 호헌투쟁위원회 학생, 3선개헌반대 무기한 단식투쟁 선언
- 1969. 9.19. 빌라도광장, 개헌안변칙통과 성토대회 개최.
- 1979. 빌라도광장, 반유신 민주운동 전개
- 1980. 빌라도광장, 학원민주화운동, 전두환 퇴진 시위, 계엄철폐투쟁
- 1984.11. 빌라도광장,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생 등 4개대학 연합 학도호국단
철폐 투쟁, 성토대회 개최
- 1987. 6. 운동장, 노천강당, 빌라도광장, 호헌철폐 직선쟁취 투쟁 전개
- 1988.10.27. 노천강당, 대구지역 대학생 [광주학살, 5공비리 관련자 처벌을 위한 대구지역투쟁연합 선포식] 개최.

(5) 경북대 시계탑

□ 위치 : 대구시 북구 산격동



현 경북대 시계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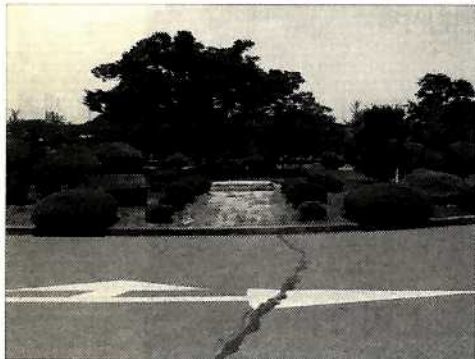
□ 역사적 의의

- 1960. 4.19. 운동장, 4·19시위 시작 지점
- 1960. 6.18. 민주선거촉진학련 결성
- 1960.11.10. 민족통일촉진학생연구회 결성

- 1960.11.26. 민족주의학생운동협회 결성. 정당성 배격, 민족주의 주체의식 회복
- 1964. 3.25. 한일회담 반대운동
- 1964. 5. 군정연장 반대운동
- 1965. 4. 한일협정비준 반대운동
- 1967. 7. 6·8부정선거 규탄
- 1969. 삼선개헌반대투쟁
- 1970.12.7~10. 교련강화반대성토.
- 1973.11.~12. 교내로터리, 언론자유보장 요구하며 유신체제 반대
- 1978.11. 시계탑, 두 차례 [민주구국선언] 사건
- 1979. 9.~10. 유신반대운동
- 1980. 4. 시계탑, 구국선언문
- 1980. 5. [현시국대책위원회] [민주화투쟁협의회]
- 1984.11. 2.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대구지역 대학생, 경북대 로터리에서 [학생의 날 부활 연합기념식]을 개최하고 가두시위 전개.
- 1985. 4.10. 경북·영남·계명·대구대생 3백여 명 4개 대학연합학원민주화쟁취대회 개최
- 1985. 4.23. 대구 4개 대학 3백여 명 [방일반대]시위
- 1985.10. 7. 학원탄압저지투쟁위원회 결성
- 1987. 6.21. 시내 5개대연합 '2보 전진을 위한 대구지역 학생시민 연합대동제' 개최

(6) 영남대

□ 위치 : 경북 경산시 대동



현 영남대 통일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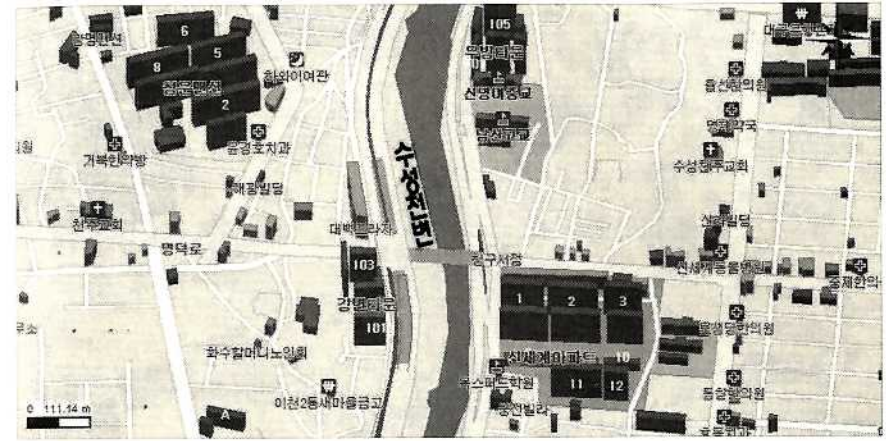
현 영남대 본관앞

□ 역사적 의의

- 1973.12. 1. 언론자유보장, 학원사찰중지 요구 시위
- 1974.11. 언론자유주장하며 반유신 시위
- 1979. 탈춤 사진
- 1980. 4. 학원민주화를 위한 학내 시위, 거의 매일 공청회와 집회 개최.
- 1980. 5.14. [계엄령철폐] 요구. 경산에서 대명동캠퍼스까지 이동하며 시위.(교문-경산-남부정류장-반월당)
- 1984.11.13.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생 등 대구지역 대학생, 사회관 광장에서 학도호국단 해체식을 갖고 시위 전개.

(7) 수성천변

□ 위치 : 신천



구 수성천변 집회 모습



수성천변 모습

□ 역사적 의의

대구시내를 관통하여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신천중 수성동 주변에는 넓은 광장이 형성되어 있어 선거 유세 등 대중 집회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다. 특히, 4·19시기 민주·민족운동 관련 집회가 자주 열렸던 곳이다.

- 1961. 4. 6. 악법반대공동투위 수성천변서 쫓겨대회 개최

(8) 종합운동장

□ 위치 : 대구시 북구 고성동



종합운동장에 모인 시위군중

□ 역사적 의의

- 1960. 6.23. 4·19 대구희생자 영령 위령제
- 1965. 한일회담 인준 반대 대구총궐기대회
- 1961. 2·28학생기념대회 개최.
- 1965. 7.10. 한일회담 인준 반대 대구총궐기대회

(9) 달성공원

□ 위치 : 대구시 중구 달성동



현 달성공원

□ 역사적 의의

- 1961. 3. 2. 혁신계 3·1절 기념식 개최, 남북한의 즉각 통일촉구, 민통대표 유엔감견 주장

(10) 대구백화점

□ 위치 : 대구시 중구



현 대구백화점

□ 역사적 의의

대구백화점은 대구의 동성로에 위치해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상권이 이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되었다. 이에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대중집회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이다.

- 1971. 9. 1. 한국문제연구소경북지부 주최 남북가족찾기운동 대토론회
- 1971.10. 민주수호협의회경북지부 결성
- 1980. 5.14. 계명대 무기 휴교, 계명대생 교내 시위 이후 가두시위 전개. 삼각로터리-2·28기념탑-대구백화점
- 1987. 6.22. 대구시내 5개대생의 '민주화실천주간 선포식 및 출정식'이후 야간집회 개최
- 1988.11.14. 시민·학생 3천여 명 대구백화점, [19일 총궐기를 위한 대구시민학생 한마당]
- 1988.11.26. 시민궐기대회 후 평화행진

(11) 경북도청

□ 위치 : 대구시 중구 (현재 대구시 북구 산격동)



구 경상북도청(현 중앙공원)

□ 역사적 의의

옛 경북도청은 일제시대부터 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10월항쟁의 기념적 장소일 뿐 아니라 가두시위 때 시위대가 거쳐 가는 민주화공간이다.

- 1960. 4.26. 경북대 대학교수단 시위대 도청 앞을 거쳐 역전으로 이동
- 1960. 4.19. 청구대, 3백 명 '3·15부정선거를 규탄하자! 도청으로 가자'며 시위
- 1973.12. 1. 경북대, 1,000여명 학생 오전 10시 교내 로터리에서 결의문 채택, 도청 향해

(12) 명덕로터리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현재 대구시 서구 두류동 두류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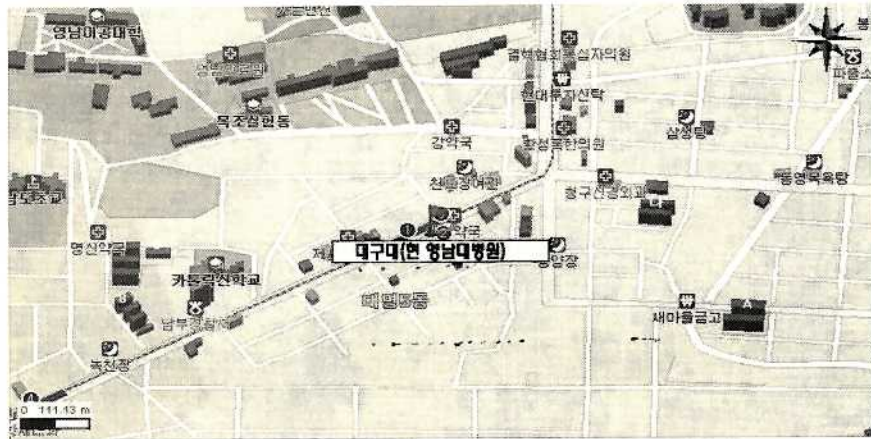
명덕로터리 2·28기념탑
(현재 두류공원으로 이전)

□ 역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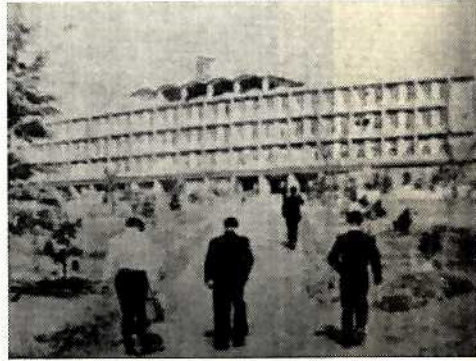
- 1961. 4.19. 2·28기념탑, 명덕로터리에 착공, 1962년 4월 19일 제막식
- 1988.11.14. 시민·학생 3천여 명이 모여 대구백화점에서 [19일 총궐기를 위한 대구시민 학생 한마당] 개최. 야간 햇불 시위 전개. 한일극장~미도백화점~중앙로~명덕로터리~서문시장~대구대

(13) 대구대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명동(현재 청구대와 통합해 영남대로 됨)



한일회담반대시위에 나선 대구대생



구 대구대(현 영남이공대)

□ 역사적 의의

- 1960. 4.20. 대구대학, 운동장 → 미 8군 앞 → 대봉동 → 동인동 → 삼덕동
- 1960. 5.30. 천여 명, 이승만의 망명 방조 허정과정규탄 대회 개최
- 1964. 3.25. 한일회담 반대 시위
- 1967. 6. 6·8부정선거 규탄 시위

(14) 청구대

□ 위치 : 대구시 중구 (대구대와 통합해 영남대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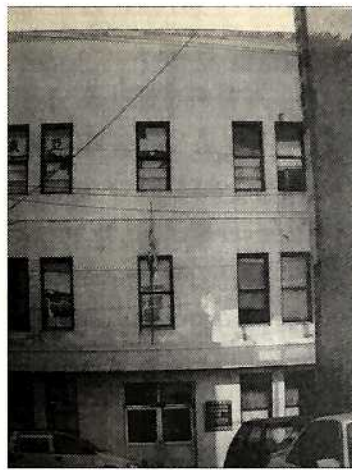
옛 청구대 자리(현 밀리오레 쇼핑몰)

□ 역사적 의의

- 1960. 4.19. 청구대 운동장 → 동성로 → 중앙동 한국은행 대구지부
- 1960. 4.19. 3백 명 '3·15부정선거를 규탄하자! 도청으로 가자'며 시위
- 1960. 4.26. 교수단데모, 이승만 하야 요구

(15) 민주당사(신민당사)

□ 위치 : 대구시 중구 대안동(현재 중구 반월당으로 이전)



대안동 신민당사

남산동 민주당사



□ 역사적 의의

1950년대 이후 대구지역 제도권내 야당 정치세력의 중심지이며, 야당의 반독재운동의 근거지로서 공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1960. 4.12. 민주당 경북도지부 대안동 당사에서 풍선데모, 규탄대회 강행 결의, 11일 저녁부터 당사에서 백여 명 농성
- 1961. 3.18. 학생공투위 역전 광장에서 이대약법 규탄대회를 열고 햇불데모 전개. 역전 광장 → 북성로 → 민주당도당사 → 남산동 → 덕산파출소 앞에서 해산 규정연장반대시위
- 1963.

(16) 효성여대

□ 위치 : 대구 남구 봉덕동(현 경북 영천 하양, 대구가톨릭대학으로 변경)



구 효성여대(현 효성타운)

□ 역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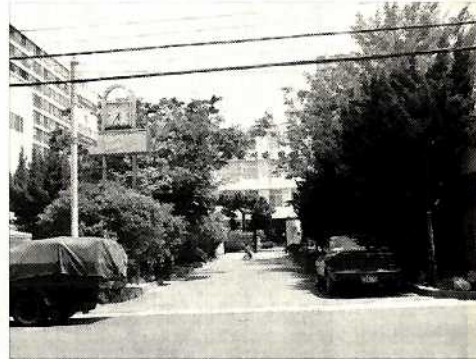
- 1960.10. 2. 학원민주화운동으로 분규 격화
- 1973.12. 성모상 앞, 구국 결의문 채택, 도서관에서 단식농성 돌입

(17) 경북고등학교

□ 위치 : 대구시 남구 대봉동(현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2·22결의문 낭독장면



구 경북고등학교(현 대봉도서관)

□ 역사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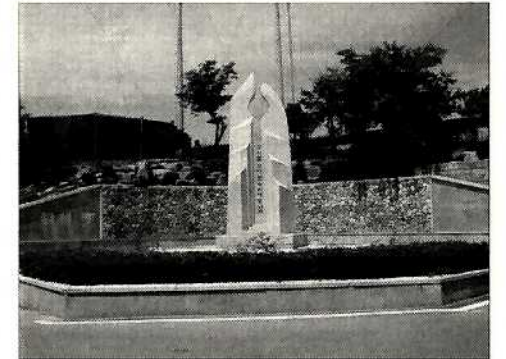
본관 앞, 2·28민주운동 결의문 낭독

(18) 대구고등학교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현 대구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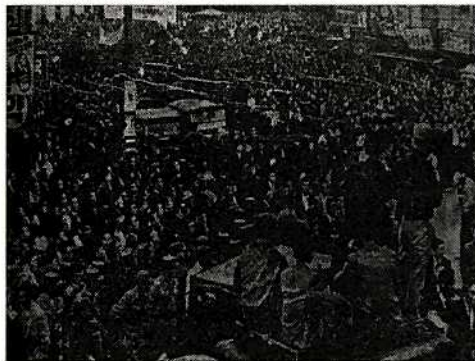
현 대구고등학교 2·28 기념조형물

□ 역사적 의의

2·28민주운동 전개

(19) 중앙통

□ 위치 : 대구시 중구 소재



중앙통에 모인 시위군중의 모습



현 중앙통 모습

□ 역사적 의의

중앙통은 일제시기 대구역 개통 이후 만들어진 12간 도로로서 반월당과 대구역까지 이어지는 도로. 해방공간에서부터 현재에까지 중심지 가두시위를 전개할 때 반드시 통과하는 거리이며, 집회도 자주 열린다.

6) 관련 자료

1. 2·28결의문 : 1960. 2. 28.
2. 4·19경북대 결의문과 구호 : 1960. 4. 19.
3. 4·26대구대(현 영남대) 교수데모 구호 : 1960. 4. 26.
4. 4·26경북대 교수단 선언문 : 1960. 4. 26.
5. 대구대 한일회담반대 시위 결의문 : 1964. 4. 1.
6. 대구대 한일회담에 대한 시국선언문 요지 : 1964. 4. 15.
7. 천주교사제단과 구속자 가족협의회 성명 : 1975. 2. 24.
8. 민주회복국민회의 경북지부 결의문 : 1975. 3. 7.
9. 사회정의구현을 경북학생협의회 결의문 : 1979. 9. 4.
10. 일체의 독재복고 책동을 분쇄하라(계명대) : 1980. 5.

(1) 2·28결의문 : 1960. 2. 28.

인류역사 이래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고,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디 그 어느 역사 속에 끼어 있었던가?

오늘은 바야흐로 주위의 공장 연기를 날리지 않고 6일 동안 갖가지 삶에 허덕이다 모이고 모인 피로를 풀날이요, 내일의 삶을 위해 투쟁을 위해 그 정리를 하는 신성한 휴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의 휴일마저 빼앗길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일주일동안 하루의 휴일을 쫓 권리가 있다.

이것은 억지의 말도 아니고 꾸민 말도 아니고 인간의 근대 몇 천년동안 쪽 계속해서 내려온 관습이요, 인간이 생존해 나가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 만든 휴일을 빼앗기자, 우리는 피로에 쓰러져 죽어야만 하나 생각해볼지어다.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장차 동아를 짊어지고 나갈 굳굳한 역군이요 사회악에 물들지 않은 백합같이 순결한 청춘이요 학도이다.

우리 백만 학도는 지금 이 시각에도 타골의 시글 잊지 않고 있다. [그 촛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큰 꿈을 안고 자라나는 우리가 현성인의 사회의 정치놀음에 일체관계할리도 만무하고 학문습득에 시달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러나 이번 일을 정치에 관계없이 주위사회에 자극받지 않은 책 냄새... 촛불 꺼뜨리게 않은 순결한 이성으로서 우리의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일장의 쫓기를 하려한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치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수.....를 쳐 ...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서의 호소인 것이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릴 학도이다.

이 민족의 조국애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 주려는가? 우리는 끝까지 이번 처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을 때까지 싸우련다.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1960. 2. 28.

(2) 4·19경북대 결의문과 구호 : 1960. 4. 19.

<慶大生 '데모' 決議文>민주대한의 장래가 점점 암담하여지는 민족의 중대위기에 처하여 우리경북대학생은 구국선열의 고귀한 정신을 발휘하여 대한의 민주발전과 참된 민주교육에 헌신코저 분투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 주장을 천명하는 바이다. 일. 구속 중인 우리의 학도 동자를 즉시 석방할 것. 이. 마산사건에 대한 상세한 해명과 동족 살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의 소재를 밝힐 것. 셋. 악독한 고문과 구타를 행한 경찰로 공인된 자를 즉시 구속 처단하라. 넷.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장해하는 법률을 무효화 시킬 것 끝으로 이합법적인 데모가 흉악무도한 공산당으로 하여금 선적이득을 갖지 못하도록 위정자의 적절한 조치를 바라며 대한의 민주 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을 것을 충심으로 요망하는 바이다. 경북대학생 1960. 4. 19.

경북대 4·19 데모시 결의문과 구호

□ 결의문

1. 마산사건으로 구속된 학생을 석방하라.
2. 부정선거 다시 하라.
3. 합법적 데모에 간섭말라.

□ 구호

1. 부정선거 다시 하라.
2. 마산학생사건 규명하라.
3. 폭항경찰관 물러가라.
4. 삼인조, 구인조 반대한다.
5. 학생은 살아 있다. 시민은 안심하라.

(3) 4·26대구대(현 영남대) 교수데모 구호 : 1960. 4. 26.

대구대 교수데모 1960. 4. 26.

구호/ 대구대 학생 데모 /대구대학-남문시장-중앙동
 이승만씨의 대통령직 즉각 사퇴
 이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학도들의 흘린 피를 헛되이 하지 말라
 민주주의 생취하자
 부정선거 주모자를 국외로 추방하라
 한희석 최인규를 사형에 처하라
 악질관리 이종왕 대구시장 아 하루빨리 물러나라
 국민을 깔보지 말고 집권당아 물판 마셔라
 동포여 울지 마라 학도는 살아 있다.

(4) 4·26경북대 교수단 선언문 : 1960. 4. 26.

□ 선언문

이승만정부는 집권 12년간 온갖 민주반역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부산정치파동, 사사오입개헌, 2·4파동 등 목격된 실정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가하다니 마침내 3·15 정부통령선거에 이르러서는 천인공노할 부정협잡폭력선거로 민주국가의 반석인 국민이 선거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말았다. 이에 분격하여 우리 민중들 특히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학도들은 전국에서 쫓기하여 마산사건, 4·19의거 등으로 민주반역행위에 항거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욕에 연연한 대통령 이승만은 아직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고식적인 정치연명책에만 급급하고 있다.

거룩한 3·1정신을 이어 받은 우리 젊은 학도들의 의혈을 어찌 우리는 좌시할 수 있겠는가. 이에 경북대학교 교수 일동은 엄숙히 다음 9개 사항을 선언한다.

- ① 이승만은 대통령을 즉시 사임하라.
- ② 내각책임제 개헌은 개선되는 국회에서 하라.
- ③ 행정, 입법, 사법 각부의 요인들은 그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가라.
- ④ 부정선거를 조작 지휘한 주동자들은 엄단하며 새로 실시될 모든 선거는 공정을 기하라.
- ⑤ 학생 살상을 명령한 자와 그 하수인들을 즉시 체포 엄단하며 데모에 관계된 학생들은 전원 즉시 석방하라.
- ⑥ 학원의 정치 도구화를 배격한다.
- ⑦ 경찰은 엄정 중립할 것이며 학원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라.
- ⑧ 학생들은 이북 괴뢰 집단들의 이번 의거를 역이용하고 있음을 항상 주지하라.
- ⑨ 학생들은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지성으로서의 이성을 찾아 학생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단기 4293년 4월 26일 경북대학교 교수단

(5) 대구대 한일회담반대 시위 결의문 : 1964. 4. 1.

대구대학신문. 1964. 4. 1.

1964. 3. 25부터 대구대학생 천여 명 한일회담 반대 시위.

결의문.

한일회담을 즉시 철회하라

야당은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

감금된 학생을 즉시 석방하라

일본어선의 침해적 행동을 규탄한다

한일회담 가조인을 철회하라

구속학생을 석방하라

한일가조인은 굴욕적인 외교라고 단정한다

(6) 대구대 한일회담에 대한 시국선언문 요지 : 1964. 4. 15.

대구대학 한일회담에 대한 시국선언문 요지

대구대학 2천 학도들은 국가 장래를 위하여 스스로 자숙했고 침묵했으나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14년간의 노력의 결과가 우리의 주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 첫째 청구권에 관한 3억 배상이란 근거를 있으며 동시 대..공닌 자바, 필리핀 등에 비해 우리의 피해액이 적음은 무슨 이유냐? 둘째 일부 동포의 지위만을 제정함으로 60만 교포의 법적 안정과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가? 셋째, 어업협정에 있어서 평화선의 근본 설치 목적을 ... 알고 있는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아 가조인된 3대안을 일체 제정치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이라는 본분에 앞서 국민된 정의감에 발로로 인한 사회참여로 구속된 학생을 즉각 석방하도록 요구하며 일어선의 지속적인 침략행위를 경고하고 충남호 충돌사건에 대한 변상조치를 일본당국에 강경히 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반대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성을 시정치 않을 때는 여하한 행동도 불사할 것을 선언한다.

1965. 4. 15.

(7) 천주교사제단과 구속자 가족협의회 성명 : 1975. 2. 24.

74년의 인혁당사건-4월 25일과 5월 27일 중앙정보부장의 발표에 의하면 도예중, 하재완, 서도원 등이 경북대 졸업생 여정남을 포섭, 민청학련을 조직하여 정부전복을 획책했다고 하나 재판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氏)가 69년 7월경 하재완의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을 뿐 공소사실과 관련된 목적으로 만나 일은 전혀 없었다. 4월 25일의 발표에 도(都) 등 6명뿐이었는데 그 후 5월 2일과 8일 사이에 전창일, 우홍서 등 15명이 모두 자택에서 검거됐는데 왜 인혁당사건의 보도를 보고도 피신하지 않았겠는가. 피고들의 상고이유서를 볼 때 중앙정보부가

각본과 도표를 미리 작성해 놓고 그것에 맞추려고 고문을 했다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인혁당 또는 인혁당재건이라는 말은 법정에서도 없었는데 당국이 일방적으로 발표, 10년전 인혁당은 물론 현재의 인혁당에도 전혀 무관한 사람을 인혁당간부나 당원으로 둔갑시켰다. 도와 하 등이 조사과정에서 고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 내지 진술서를 쓴 것은 이들이 상고이유서와 법정진술내용에서 모두 밝혀졌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포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 그대로 끌어냈으며 지난 17일 밤 서강된 민청학련 주동자로 알려진 이철(李哲)군(서울대 사회학과 3년)은 “민청학련운동이 인혁당의 조종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혁당 피고 가족들이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되어 3, 4일간씩 연금상태에 있으면서 ‘남편들의 죄를 시인하라’ ‘다시는 구명운동을 안하고 기도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등의 강제진술을 쓰게 한 한 가족은 집단자살까지 기도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할 볼 때 인혁당은 조작된 것이며 어떤 정치성 목적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는 견해에 도달한다. 따라서 국민의 의혹을 풀기 위해선 공개된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

(8) 민주회복국민회의 경북지부 결의문 : 1975. 3. 7.

결의문

정당성과 도덕을 상실한 법은 이미 폭력이다. 국민은 물론 대학생 심지어 국회의원에게까지 비인간적 야만적 고문을 하지 않고는 정권유지가 안된다면 그것은 이미 정부가 아니다. 이 악의 역사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오백만 도민을 대신하여 모든 위해를 무릅쓰고 우리는 쫓기하며 이에 본결성대회와 결의문을 채택한다.

1. 우리는 민주회복국민회의 중앙발기취지와 민주 민족 국민헌장을 지지한다.
1. 석방된 학생들은 조속히 전원 사면할 것이며 소위 인혁당사건은 공개재판에 회부하라.
1.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대한 탄압을 세계 모든 자유인과 더불어 규탄하며 우리는 동아의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겠다.
1. 천인공로할 고문지령자와 그 일당을 색출 엄중처벌할 것이며, 그 방지책을 조속히 밝혀라.
1. 작금의 야당영수급 지도자들에 대한 무법불법의 탄압과 강제연행시 사실상의 연금 상태를 즉시 해제하라
1. 우리는 유신헌법이 완전 철폐되고 민주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1975년 3월 7일 민주회복국민회의 경북지부

(9) 사회정의구현을 경북학생협의회 결의문 : 1979. 9. 4.

우리를 저 거리로 뛰쳐나가게 하는 자 누구인가
경북학생협의회(경북·계명·영남대학교) 1979. 9. 4.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선포된 이후로 '한국적 민주주의'란 미명하에 모든 자유가 유보된 민주주의의 슬픔을 우리는 맛보았다. 20여 년간의 독재정치는 마침내 정치권력자의 가부장적 권력구조라는 비극적 상황에 도달하였으며, 조국통일의 대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묶여 금기의 언어로 되어 가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존립근거 자체가 논의되고 있는 유신헌법에 의해 혼란된 정치질서는 국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는 금지되어 정치 권력자와 특권계층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YH무역사태에서 다시 한번 보았던 제2당에 대한 과도하고도 잔인한 탄압행위는 민주정치가 정당정치를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정치철학에 대한 위협한 배반이 아닐 수 없다.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의 발동 이후 장기집권의 야욕 속에 자행된 공포정치의 일당은 학생, 종교인 및 강제입영으로 우리들 양심인의 호소는 외면당하였으며 신앙의 자유 및 사상과 양심의 자유마저도 박탈하고 병역의무를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신앙의 자유는 개인의 귀중한 생명지의의 표현이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민중을 노예화하려는 민주주의에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불어 대학은 민주주의의 가치 실험지이며 학문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

만일 교련실시와 학도호국단이 대학의 자율적 문화·창조 행위를 저해하려는 정권유지 술책이라면 우리는 이를 거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의 세계를 열고 역사적 현재에 설 때다. 우리를 저 거리로 뛰쳐나가 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자 누구인가? 백의의 선조들이 뼈를 깎아 세우던 이 붉디붉은 황토빛 위에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어두운 역사를 민주주의의 광명한 햇불로 밝히자.

□ 결의문

1. 최근 YH사태와 구미·서통 등의 노동자 부당하고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농협·수탈행위와 노동 3권의 유보조항을 철폐하라.
2. 김경숙 양의 죽음에 대해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라.
3. 외세의존적 경제정책을 조속히 중지하라.
4.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및 제 기본권을 보장하라.
5. 구속된 학생, 종교인 및 민주인사를 전원 석방하고 강제 휴학 및 강제 입영을 즉각 중지하라.
6. 교수임용제를 철폐하고 학내 모든 경찰요원을 즉각 추방하라.

1979년 9월 4일

(10) 일체의 독재복고 책동을 분쇄하라(계명대 총학생회) : 1980. 5.

본 계명대학교 총학생회 그 출범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1. 유신체제의 반민주적, 반민주적 체제하에서 타율과 굴종을 강요당해왔던 한국 사회와 학원은, 10·26 이후의 민주국민의 당연한 요구로서의 민주화와 자유화의 정당한 진행이 국민

대다수 민중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천명하며,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형태로서의 개입도 반민주적, 반민족적인 세력으로 단호히 배격, 응징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명분 없는 계엄령의 계속을 민주화와 자유화의 저해요인이라 단정하고 현 정부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1. 계명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이미 교련의 자유화를 이를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교련 역시 대학교 과목 중의 하나이므로 이의 수장여부 역시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교련의 자유수강제를 요구한다.

우리 대학인의 안보의식은 굳건하다. 이러한 의식의 진작은 학생의 자발적이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위 능력으로 되며, 그 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안보의식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사교육 및 병영집체훈련은 안보를 빙자한 학원탄압이며 이는 인간을 획일화시키며 대학인의 지성과 비판의식을 해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현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대 및 제 대학 학생들의 병영집체훈련 거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1. 신성한 학원 내에서의 재입 중의 정치인 흉상 설치는 1인 숭배의 발상이며 독재적 권력에 대한 반민족적인 아부이다. 이에 대한 제거는 진정한 민주화, 자유화, 학원 내의 자율화의 의지이다. 이러한 학원 내의 문제는 학원 내의 처리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계명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4월 19일 경대 사대 신관의 전대통령 박정희씨 부조 흉상제거에 관련된 경대 두 학형의 계엄사의 구속은 정당한 학원민주화를 향한 학생들의 노력을 분쇄하려는 구유신 잔재들의 불순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 과도정부의 민주발전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발언들과 함께 구유신잔재들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 사회의 전체의 노력으로써 배격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 계명인은 한국의 민주화를 향한 국민 모두의 여망을 배반하려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과감히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의 석방을 촉구한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와 문리대 공대 교수님들의 결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들 학형의 석방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1. 최근에 야기된 사북탄광과 부산 동국제강 및 기타 제 근로자들의 어용노조 철폐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항거는 외세의존적 매판경제 구조가 빚어낸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정부는 이들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매판적 경제구조를 즉각 폐지함과 아울러 국민 전체 복지를 위한 민족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의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수호를 제약하고 있는 제법의 폐지는 물론 노동 3권을 즉각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 과거 유신체제의 독재적 정권은 학원탄압의 수단으로서 학생들을 안보의 이용물로서 획일화하려 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민주화, 자유화의 전위적 주체적 집단으로 확신하며 학생들은 어떠한 형태로의 독재로의 복고를 책동하는 세력과 사회의 부정, 부패, 부조리에 대한 주시자이며 개혁자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980년 5월

7) 참고문헌

- 『한국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 2·28민주의거 40주년특별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사』 1, 2, 3, 경북인쇄소, 2000.
- 4월혁명동지회, 『4월혁명』, 1965.
- 강만길 외, 『4월혁명론』, 한길사, 1983.
- 강만길·박현채, 『80년대의 민족운동사적 의미』, 『사회와 사상』, 한길사, 1988.9.(창간호).
- 기사연리포트, 『6월 민주화대투쟁』, 민중사, 1987.7.
- 기사연리포트, 『군부독재 종식과 선거투쟁』-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민중사, 1987.11.
- 기사연리포트, 『노정권의 출범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민중사, 1988. 4.
- 김삼웅 엮음, 『서울의 봄, 민주선언』, 일월서각, 1987.
- 김삼웅, 『민족민주민중선언』, 일월서각, 1984.
- 김성환 외, 『1960년대』, 거름, 1984.
- 김영택, 『현장기자가 쓴 10일간의 취재수첩』, 사계절, 1988.
- 김학준, 『반외세의 통일논리』, 형성사, 1983.
- 나라사랑 편집부, 『통일혁명당』, 나라사랑, 1988.
- 노중선 편, 『민족과 통일』1-자료편-, 사계절, 1985.
- 노중선, 『4·19와 통일논의』, 사계절, 1989.
- 대구민주화기념보존회, 『草靡의 바람』-대구·경북야당사, 1999.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사』, 1992.
- 대동 편집부 엮음, 『통혁당-역사·성격·투쟁·문헌』, 대동, 1980.
- 대한변호사협회 편, 『인권보고서』 제3집 1987, 1988, 역사비평사, 1989.
- 민가협 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10대 조직사건』, 아침, 1989.
- 민족문제연구소 지음, 『한일협정을 다시 본다』-3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아문화사, 1995.
- 민주연합청년회(준비위), 『민주연합』 1990. 9. 창간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정치운동관련문헌해제』, 내일기획, 2003.
- 사계절 편집부, 『80년 전후 격동의 한국사회 1』, 사계절, 1984.
- 사계절, 『전환-6월 투쟁과 민주화의 진로-』, 사계절, 1987.
- 사월혁명연구소 편,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 1, 2, 한길사, 1990.
- 사회평론사 편집부,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길잡이』, 사회평론사, 1991.
- 세계 편집부, 『1964~1986 공안사건 기록』, 세계, 1986.
- 양호민 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1986.

- 六一會 편, 『4월민주혁명사』, 제3세대, 1992.
- 이기택, 『한국야당사』, 백산서상, 1987.
- 이만열 엮음, 『한국사년표』, 학민사, 1985.
- 이목, 『한국교원노동조합운동사』, 푸른나무, 1989.
- 이재오, 『해방후 한국학생운동사』, 형성사, 1984.
- 이정로, 박노해 외, 『민중당 국민연합 그리고 민중통일전선』, 노동문학사, 1990.
- 일월서각, 『4·19혁명론』2, 자료편, 일월서각, 1983.
- 영대문화편집위원회, 『영대문화 36집 겨울호』, 1996.
- 중앙일보사, 『80년대 한국사회 대논쟁집』-격동 80년대 한국사회를 움직인 92대 논쟁 대집성, 중앙일보사, 1990.
- 채만수·김장한 편, 『한국사회통일전선논쟁』-현단계 통일전선운동의 쟁점과 그 전망-, 죽산, 1990.
- 청사 편집부, 『민중』제1권, 청사, 1983.9.
- 청사편집부 편, 『70년대 한국일지』, 청사, 1984.
- 학민사 편집실편, 『4월혁명자료집 혁명재판』, 학민사, 1985.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87한국정치사정 별책·성명서모음』, 민중사, 1988.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7~8월 노동자대중투쟁』, 민중사, 1987. 9.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리포트 2-6월 민주화대투쟁』, 민중사, 1987.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리포트 10-5공청산과 악법개폐투쟁』, 민중사, 1988.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개헌과 민주화운동』, 민중사, 1986.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의 사회정의 지표』, 민중사, 1986.
- 한국기독교사회연구소 편, 『개헌과 민주화운동』, 민중사, 1986.
- 한국사회연구소 편, 『동향과 전망 3』, 백산서당, 1988.
-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1-5권, 1962.
- 한승헌 외 6인, 『유신체제와 민주화운동』, 춘추사, 1984.
- 한울 편집부, 『현단계 1987』 제1집, 한울, 1987.
- 황의봉, 『80년대의 학생운동』, 예조각, 1985.

2.

노동

1) 개요

이 글은 한국전쟁 이후 최근까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노동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의 흐름을 요약, 정리하고 관련 사건, 단체, 유적지에 관해 기록한 기초조사이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일제하 반외세 자주독립운동과 해방이후 통일독립정 부수립운동, 반외세자주화, 반독재민주화운동, 민생민권운동 그리고 근래의 신사회운동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운동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곳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진보와 민주 민권민생을 도모하는 지역 노동자, 농민, 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각당각파의 자생적 저항과 목적의식적 운동은 지역운동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은 한국사회 자본주의의 성장 확대와 더불어 사회운동의 주축세력으로서 성장해왔다.

해방이후 최근까지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의 전개과정을 국내 정치적 상황과 노동운동의 성장을 중심으로 시기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다.

- i) 해방이후 1970년대말까지 : 지역 노동운동의 前史
- ii) 1980년부터 1987년까지 : 지역 노동운동의 모색기
- iii) 1988년부터 1996년까지 : 지역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성장기
- iv) 1996년부터 현재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 노동운동으로의 전환기, 조정기

해당 시기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이 전개한 노동운동 전반, 즉 조직적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비조직적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쟁의활동까지 포괄할 것이다. 다만, 대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대상지역이 넓고 과거 노동쟁의 자료를 구하기 힘들며, 조사 기간이 짧은 조건에서 경북지역에 대한 조사는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 노동운동의 주요 사적지는 해당 지역 노동운동가들과의 면담과 설문지 조사를 토대로 현장 활동가들이 스스로 지역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건과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2)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사 시기별 개괄

(1) 해방이후 1970년대 말까지 : 지역 노동운동의 前史

① 객관적 정세

해방직후 한국경제는 일제하에서 조성된 기형적인 산업부문간 불균형과 함께 심각한 원자재 부족과 생산체계의 붕괴로 인해 심각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생산공장의 핵심기술자는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가고, 공장가동률은 30~40%에 머물고 있었다. 해방직전 일본이 철수자금마련을 위해 남발한 통화와 연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시인플레이션은 살인적인 고물가를 만들어 해방을 맞이한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¹⁹⁾

대구의 경우, 일제 때부터 주력업종이었던 제사, 제직업과 경공업부문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을 뿐더러, 경인지역의 방직공장이 파괴되거나 대구로 이전하게 되면서 전쟁군수물자의 후방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부산의 조선방직과 대구의 삼호방직(1949), 조선방직 대구공장(1949.11.2)은 면사를 공급하는 전국적인 공장이었다. 섬유도시로서 대구의 입지는 실로 한국전쟁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²⁰⁾ 특히, 당시 대구지역은 임금수준이 부산의 1/3에 불과해 메리야스 등 군수납품에 더욱 유리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고물가와 식량부족, 피난민의 유입, 실업사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어갔다. 1946년 9월 총파업과 연이은 대구10월 항쟁에서 대중들의 첫 번째 구호가 “쌀을 달라”는 구호였음은 이를 대변하고 있었다.

미국에 의존한 1950년대 원조경제는 대구지역에서 섬유공업과 상공업의 팽창을 가져왔고, 1960년대 군사정권에 의한 경제개발계획은 대구 산업구조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몰고 왔다. 농림업부문의 취업인구비율이 1962년 9.8%에서 1971년 4.9%로 반감하고, 광공업의 비중은 17.6%에서 약 30%로 높아졌고, 3차산업의 비중은 72.6%에서 68.2%로 낮아졌다. 하지만, 전국 공업에서 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한 경제성장기 동안 오히려 감소하였다. 종업원 수의 비중은 1963년 전국 대비 10.8%에서 1971년 5.9%로 감소하였고, 생산액은 각각 7.6%에서 4.0%로 감소했다. 섬유공업의 경우,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섬유소재공장들이 다른 지역들에

19) 1945년 7월 말 47억원이었던 통화량이 8월 말에는 80억원으로 1개월만에 무려 70%나 늘어나왔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러한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당시 대구의 소매물가지수는 1947년을 100으로 볼 때, 휴전이 성립된 1953년에는 8,248로 약 82배의 불가상승률을 보였다. 대구시사편찬위원회, 『大邱市史』 제3권, p.64-65. 대구시.

20) 한국전쟁이 끝난 1956년 현재 대구시내에 있는 1,666개 공장 중 82%에 해당하는 1,368개 업체가 직물과 메리야스 등 섬유공장이고, 공장노동자 3만 3천명 가운데 78%인 2만 6천명이 섬유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앞의 책, p.72.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봉제공업이 발달한 반면, 대구의 경우 중소기업의 직조업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출중심의 산업구조와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이 군사정권의 강권통치하에서 고착화되는 가운데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불리한 세계경제 조건 속에서 대외의존형의 경제구조, 중화학공업중심의 산업구조, 유신체제의 경직성,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 화려한 수출성장 뒤의 암울한 한국경제의 한계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1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연평균 9.7%의 고도경제성장률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76~1981년) 중에는 6.0% 성장률로 둔화되었고, 급기야 1980년 마이너스 5.2%로 감소했다. 1970년대에 전반에 걸쳐, 두 자리의 인플레이션, 만성적인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가 지속되었다.

1970년대 대구경제는 경기에 민감한 섬유산업이 주종이었기 때문에 석유파동이후 불경기로 더욱 큰 고통을 받았다. 노동집약적 중소 영세규모 섬유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구경제에서 1인당 GRP(Gross Regional Product)는 1976년부터 전국수준을 밀돌기 시작했고, 1인당 GRP의 연평균 성장률도 전국수준 5.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에 머물고 있었다. 1971년부터 1981년까지 총고용성장률은 전국 전체산업 170.2%에 비해 대구는 75.8%로 절반에 못 미쳤다. 산업별 취업구조면에서는 도소매업, 운수통신,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1981년 말 현재 대구지역 전체업체 76,049개 가운데 제조업체가 17.8%, 나머지 77%가 소비향락관련업소이며, 업체당 평균고용 종업원수 3.7명으로 대구지역이 중소 영세기업 위주의 소비형도시로 전락하게 된 사정을 알 수 있다.

② 1970년대까지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의 흐름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의 시발은 일제하 노동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산하 창립된 대구노동공제회, 안동노동공제회는 1922년 조선노동연맹회, 1924년 조선노동총연맹에 참여, 활발한 활동을 벌인다. 또한 서울의 '신사상연구회', '북풍회', 평양의 '독서회'와 함께 선진적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의 사회주의사상단체로서 대구의 '신사상회'는 1920년대 전반기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대 이후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의해 지하로 잠복한 노동운동의 주체세력들은 해방과 더불어 전국적인 '공장접수운동', 노동조합결성운동을 신속하게 전개한다. 1945년 9월 전국노동조합평의회 준비위원회가 꾸러지고 산업별노조와 공장분회가 결성되면서 1945년 11월 5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와 산하조직으로 경북도평의회가 건설된다.

1946년 9월, 미군정 운수부가 운수노동자 25% 감원, 월급제의 일급제로의 전환 등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전평 파괴음모에 저항하여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파급된 9월 총파업은 출판, 금속, 체신, 섬유, 전기, 해운 부문으로 확산되면서, 당시 전평 자체 집계로 9월 한 달간 총 472건, 연인원 173,404명이 참여한 전국적 총파업으로 확산되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24일 대구철도노조 1천여 명의 파업, 25일 우편국노조 400명 파업, 대구섬유공장 50개 노조 3천여 명의 파업 돌입으로 이어졌다. '남조선노동자총파업 대구시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파업지휘부를 구성한 뒤에는 10월 1일 쌀배급을 요구하는 시청앞 시위, 파업노동자들의 도심시위를 조직적으로 전개

하였으며, 10월 2일 발표한 경찰에 대해 항의하여 수천 명이 경찰서 앞에 집결하여 치안기관들을 접수하기에 이른다. 이 '대구 10월 항쟁'은 경북지역과 영남지역 일원으로 확산되면서 전국적 봉기로 발전해 11월까지 지속된다.

그러나 1947년 6월 미군정의 전평 불법화선언과 2천명에 달하는 전평지도부 검속 이후 1948년 2·7 총파업, 5월 단선단정수립 반대 총파업을 고비로 전국적 노동운동은 심각한 역랑 손실을 입으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멸공, 복진통일을 내세우며 건전한 노동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함께 대한노총이라는 어용적 기구를 이용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한노총의 부패와 어용적 행각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이어졌다. 1956년 대한방직 2,600명의 노동자가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해고되자 단위노조를 중심으로 해고반대투쟁이 전개된다. 쟁의과정에서 사측과 결탁한 노조를 해체하고 어용적 태도를 취한 대한노총 경북지구연맹에 반대하여 새로이 대한노총 대구지구연맹을 결성하기도 했다. 1959년에는 김말룡을 중심으로 자동차노조가 결성되었다. 김말룡은 이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 의장 김말룡)>를 구성하여 대한노총과 대립하여 별도로 170여개 노조, 16만 명의 조합원을 조직, 흡수하기도 했다. 대한노총과 전국노협은 1960년 11월 25~27일간 통합대회를 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련)> 결성을 합의했으나 이후 노동운동의 진영내부에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점차 퇴색해갔다.

한편, 3·15 부정선거와 이에 항거한 4·19 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자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노조가 결성되는 등 노동운동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구지역은 제일모직 노조건설투쟁, 대구를 시발로 한 교원노조운동, 대구일보 등 지방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언론노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4·19혁명 이후 민주당이 집권하자 청년학생과 노동자의 사회개혁과 통일운동의 열기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의 발발로 인해 노동운동에는 기나긴 암흑기가 도래한다. 농촌수탈과 도시노동자의 노동착취에 기반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쿠데타정부는 노동쟁의에 대한 억압과 함께 변혁적 노동운동의 핵심세력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였다.

5·16군사쿠데타 이후 변혁적 노동운동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한 비합법, 비공개적 시도는 수많은 공안사건, 간첩사건으로 둔갑해 핵심 운동세력과 지도그룹을 괴멸적 상황으로 몰고 갔다. 1964년 1차 인민혁명당 사건,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1969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핵심적으로 연루된 지도그룹에는 대구·경북지역 출신인사들이거나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오랜 기간 활발하게 활동해 온 활동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²¹⁾

1970년대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은 초보적인 노동3권 마저 박탈당한 상황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와 법적 제도적 무권리 상태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 1970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행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상황은 조금도 변화될 기미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뚫고

21) 통일혁명당의 김종태 등이 대구·경북출신이고,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경우, 이일계, 노중선, 나경일 등이 대구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사회운동연구소, 「전량당 사건, 그 진상을 밝힌다」, 『사회운동 1』, 1989년 6월호 참조.

뚫구친 노동자들의 저항은 따라서 비조직적이며 자생적, 때로 극단적, 폭발적 양상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아리아악기 쟁의사례는 이 시기의 대표적 사례이다. 1978년 1월 21일 저임금과 노동자 구타사건에 불만을 품은 노조분회장등 노동자 5명이 당시 실질적 경영주였던 부사장 정구응의 집에 과도를 들고 들어가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8시간 후에 농성을 풀고 구속된 사건이다. 사건은 1977년 11월 7일 노동자들이 평소 저임금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전자과장 김모씨가 서혁교(19), 윤장환(19), 최재호(17)등 노동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쇠파이프로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아리아 악기주식회사는 오르간 제조업체로 당시 130명의 노동자가 고용된 중소기업이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견습공의 경우 1만5천원에서 2만원, 기능공은 2만원에서 5만 원 선인데, 7,8년 근속기능공이 3만5천 원 정도, 10년 근속자가 4만5천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것마저 월급제가 아니라 일당제였으며, 임금인상도 회사에 착실하게 보이는 사람만 인상할 만큼 편파적이었다. 또한 교회장로였던 경영주가 노동자들에게 교회예배를 강제하고, 비신도들에 대해서 부당한 처우를 하는 등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노동자들에 대한 구타폭행이 빈발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다. '처음 노동자들은 전원 노동조합(연합노조 아리아악기분회 1977. 8. 13. 결성)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실질적 경영주였던 부사장에 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연합노조경북지부에 분규수습과 처우개선을 조정해 주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회사 측이 이 요구를 묵살하고 주동자 5명을 해고하자, 출근을 거부하고 사건당일 대구시 봉덕동 봉덕국민학교운동장에 모여 대표 5인을 구성, 부사장집에 직접 찾아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탈세내역이 담긴 경리장부를 압수, 공개해 회사의 비리를 폭로기로 치밀하게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었다.²²⁾

아리아 악기 노동자들의 인질농성사건은 1970년대 노동현장의 생생한 현실과 노동자들의 분노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 군사정권의 강권하에서 대구지역 노동운동은 조직적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한 가운데 가혹한 근로조건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자생적 산발적 투쟁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비합법 전위조직운동이 궤멸되면서 입은 지역차원의 운동적 손실은 엄중한 것이었다. 민청학련 사건을 비롯한 사건 관련 가족들의 힘겨운 진상규명과 석방투쟁이 고립된 상황에서 한 가닥 투쟁의 빛이었다.

(2) 1980년부터 1987년까지 : 지역 노동운동의 모색기

① 객관적 정세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을 짓밟고 등장한 제5공화국 시기는 수출주도의 외형적 성장이 낡은 내재적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1980년대 중반 이른바 3저호황이라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겉으

22) 매일신문, 1978. 1. 24. 사회면

로 고성장과 경제안정을 이룩했으나 다수의 노동자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악화되어갔다.

1980년 5월 이후 노동계 정화조치, 노동조합운영지침 및 노사협의회 운영준칙(11.4) 등 정권 초기 동안 비상계엄하 노동계 '정화조치'가 잇따라 발표되었다. 1980년 이른바 국보위 입법을 통해 개악된 '노동5법'은 산별노조체제에서 기업별 노조체제로의 전환, 노사협의회 운영체제 정착, 제3자 개입금지, 공익사업, 공기업, 방위산업체의 쟁의금지, 당사자주의, 직권중재 강화, 지방노동위원회 관리권의 노동부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산업평화', '노사협조' 미명 아래 노동자들의 손과 입을 묶어놓았다. 청계피복노조(1981년), 원풍모방 등 민주노조의 교두보는 차례로 파괴되어갔다.

노동자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1980년에서 1990년에 걸쳐 노동생산성은 10.9% 증가하였으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7.1%에 그쳤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1987년 현재 주당 54.0시간으로 세계최장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군사정권은 1986년과 88년 국제스포츠경기 개최를 앞두고 민주화와 개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었다. 1983년말부터 시작된 '자율화조치'는 군사정권의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자율화조치' 뒤부터 그동안 가라앉아있던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가 다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1984년에는 5월의 사납금 인하를 요구하는 대구 택시노동자들의 시위와 농성, 200여개에 걸친 신규노동조합의 결성, 임금인상 요구 투쟁이 벌어졌다. 1985년 4월 대우자동차의 파업, 농성투쟁은 대공장 노동자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1985년 6월 구로지역의 10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구로동맹파업은 노동자가 사회변혁운동의 중심으로 커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민주노동운동을 짓밟는 모든 노동악법철폐', '구속자 석방', '임금동결정책 포기'와 최저생계비 보장, '집회 및 시위법의 철폐, 언론기본법의 철폐'같은 정치적 제도 개혁까지 요구한 구로동맹파업은 1980년 전반기의 노동운동이 집약된 결실임과 아울러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정치적 동맹파업이었다.

이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4·13 호헌조치'에 맞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6월항쟁이 일어났다. 6월 10일, 운동세력들은 명동성당 점거농성투쟁을 계기로 격렬한 가두투쟁을 벌였다. 사무직 노동자와 중소기업인들이 폭넓게 참여하였으며 투쟁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번져갔다. 이에 당황한 전두환정권은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인다는 6·29선언으로 부분적인 양보를 했다. 민중이 대규모로 참여한 6월 항쟁은 노동자 계급이 조직적으로 참가하지 못하였고 보수야당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

6·29선언 뒤 보수 정치권과 '민주화운동세력'이 주춤하는 사이 맨 처음 투쟁의 불길을 지핀 것은 노동자였다. 노동자 투쟁은 7월 5일 현대엔진 노동자가 민주노조 결성과 파업투쟁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번졌다. 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전쟁 뒤에 벌어진 투쟁 가운데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노동자 가운데 독점재벌 계열 기업을 비롯한 대공장 노동자가 투쟁을 이끌었다. 선진노동자에서 노동자 대중으로 투쟁이 번지고 서비스 사무직 노동자들이 노동운동 대열로 들어오면서 노동운동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노동자 대투쟁은 8월말부터 정부의 강경탄압으로 차츰 수그러들다가 9월 중순 무렵에는 거의 끝맺었다.²³⁾

② 1987년까지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의 흐름

10. 26 이후, 1980년 5월 광주항쟁 직전 이른바 '서울의 봄'의 시기, 전국적으로 일시적인 노동자들의 진출이 있었다.²⁴⁾ 대구지역에서는 쌍마섬유, 한일섬유, 중앙섬유, 아세아공업, 동명산업, 한철 등에서 노조결성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1981년부터 1990년 12월 말까지 대구지역 노동쟁의의 발생은 총 502건이다. 이 가운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의 노동쟁의가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²⁵⁾ 이것은 1980년 이후 1987년까지 지역 노동운동의 암울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1987년 이후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진출을 준비하는 합법, 비합법적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서 오히려 노동운동 이론과 학습이 확산되고, 사상투쟁과 현장실천을 병행하면서 건실한 지역 노동운동가들이 배출되었으며, "엄혹한 탄압을 뚫고 전진하는 대구지역 노동운동의 전투적 기풍이 마련된 시기"²⁶⁾로 지역 운동사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노동운동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대구지역 노동운동에 있어 노동자들의 자발적 자생적 투쟁이다. 조직적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확산되는데 있어 지식인들의 현장이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부인하기 힘들지만, 또한 과대하게 평가되어서도 곤란하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 상태에 처한 노동자들의 자생적, 자구적 저항은 때로 그 기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의식적 조직적 노동운동을 가능케 한 조건이었음을 강조해야 한다. 실제로, 대구지역에서 발발한, 1984년 5월 25일 택시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과 한국경전기 권영숙씨 부당해고 반대투쟁)은 당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가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으로 완강하게 전개되어, 지하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던 당시 현장그룹 활동가들과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25일 새벽1시 대구시청 앞에서 5명의 운전기사들이 동료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을 내리고, 부제완화를 관계기관에 요구하자"로 설득, 불과 3시간 만에 중앙주유소, 대구시경, 태평지하도, 대구역 등 중심가에 5백여 명이 집결, 집단 농성에 돌입했고, 날이 밝자 대구택시조합장(최용찬)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앞 농성이 이어졌다. 오후 12시 10분에는 1백여 명의 택시노동자들이 "노조결성 방해말라", "의료보험 실시하라", "전면월급제 실시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청앞으로 행진하였다. 시가지 일대는 이날 하루 완전히 교통마비가 되고 곳곳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들이 전복되어 불타는 등 극렬한 시위가 계속되었다. 노동단체들과 경북대학교학생들은 이날 택시노동자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서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동참하기도 했다. 이날의 대구의 택시노동자시위는 택시조합 측에서 사납금 4천원 인하, 택시 10부제에서 6부제로 완화 등 8개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마감되었지만, 제일택시에서 계속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

23) 이준성, 「선배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의 역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교육국, 2001.

24)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위임,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p.102.

25) 대구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1067.

26) 김찬수, 이병수 구술자료

이 연행, 구속되는 사태가 이어지기도 했다.²⁷⁾ 이 시위 이후 경산(5.26), 구미(5.29), 대전(5.30), 서울, 부산(6월) 등 전국각지로 택시노동자들의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둘째, 학생운동 경험자들의 노동현장으로서의 '투신'과정이다. 광주항쟁 이후 대구지역 각 대학의 학생운동 그룹들은 개별적 혹은 조직적으로 노동현장으로의 '존재이전'을 고민하게 되고 1986년 이후 대구지역의 주요 노동투쟁에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한편,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연계하는 통로로서 '야학운동'은 노동자들에게 검정고시 졸업장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역할보다 노동자로서의 정체 의식과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모순과 불만을 체계적으로 의식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했다.²⁸⁾ 이 과정에서 '강학(대학생교사)'들 또한 관념적인 현실인식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계기가 되었다.

대구지역의 학생운동 출신 현장투신그룹은 1984년경부터 대노협 창립(1988년)시기까지 활동한 이른바 '가, 나, 다, 라' 네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그룹들은 뚜렷한 운동노선에 입각한 이념적 조직적 결합이라기보다는 일정한 정파적 지향을 공유한 씨클적 운동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셋째, 종교계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소모임들이다. 대구가톨릭사목과 가톨릭노동청년회(JOC), 그리고 이웃교회, 작은 교회, 달구벌교회 등 민중교회운동이 대표적인데, 학생운동 출신그룹들의 현장투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 노동자 교육과 노동상담활동, 자발적 소모임 활동을 통해 1987년 이후 노동자들의 본격적 진출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했다.

이상과 같은 1980년대 전반기의 주요 흐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가운데, 1983년 9월 대구미문화원 폭파사건은 지역 사회운동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다. 공안당국은 재야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룹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검속이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야학에 다니는 노동자들까지 조사했다. 얼어붙은 대구지역 민중운동은 1983년 말 전두환 정권의 이른바 '유화조치' 이후 조금씩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학원자율화 조치와 함께 신규노조 설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학생운동뿐 아니라 지역 노동운동에 새로운 기운이 일어났다. 1984년 5월 25일 대구 시가지 일원에서 일어난 택시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투쟁과 1985년 서울 구로공단연대파업투쟁은 대구지역 학생운동 출신 현장그룹들에게도 생생한 투쟁교과서 역할을 하면서 현장에서의 단호하고 조직적인 실천과 지역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의 필요성을 확산시켰다.

1985년 대구 (주)아신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투쟁, 동협제작소 노조결성 투쟁, 한국경전기 부당해고 반대투쟁은 학생운동출신 현장취업자들과 노동자들이 결합해 일어난 최초의 투쟁이었다. 이 때 해고된 (주)아신, 동협제작소 노동자들은 1986년 1월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대구·경북 노동자생존권확보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그 해 3월 처음 독자적인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밀집했던 3공단을 중심으로 (주)아신의 노조민주

27) 매일신문 1984. 5. 25. 사회면

28) 1980년대 초반 활동했던 대구지역 야학은 메아리, 다운, YMCA생활야학, 만남, 죽전, 윤일야학 등이다. 대부분 교회와 성당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했으나, 장기간 지속되지는 못했다.

화투쟁, (주)성화, 삼부, 제일섬유 등의 해고반대투쟁, 동원금속 노조민주화투쟁 등이 잇달아 벌어졌고 1986년 4월 5일 신민당 개헌 현판식 집회에서는 시가지 일원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담은 독자적인 유인물이 배포되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시기에는 대구지역 노동자 지하씨클을 중심으로 시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치선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노동자 대투쟁이 울산을 비롯 전국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도 주로 근로조건개선, 임금인상, 노조건설, 어용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는 의식적, 자생적 투쟁들이 일어났다. 이 시기 주요 투쟁사업장으로는 무림제지, 동협정밀, 대원기계, 오대금속, 청송기계, 신라섬유와 동산병원, 영남의료원 등이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대구·경북본부>는 산하에 <민주노조지원공동실천위원회>(이태광, 박재민, 허영 등)를 두고 노동자투쟁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케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쟁의는 사측과 정부의 유, 무형적 탄압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치 못함으로써 일시적 성과로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1980년대 구미지역 노동운동은 1984년 구미 원평성당 내 노동자소모임 '나눔의 자리'에 모인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다. 1985년 흥명공업 노조가 지역 최초의 민주노조로 결성되었고, 같은 해 오성택시 노조도 결성된다. 두 노조는 임금인상과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연대투쟁, 고속도로 점거투쟁을 시도하기도 했다. 구미지역에 대학생출신 노동운동가들이 등장한 것은 1985년 초반 무림이며, 1987년 6월 항쟁을 전후로 대구지역과 인천지역의 학생출신자들의 활동이 늘어났다.

1987년 구미지역의 노동자투쟁은 8월 11일 금성전선 노동자 5백여 명의 임금인상 요구 농성에서 시작되어 금성사 구미공장 노동자, 대아리드선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으로 이어졌다. 6월항쟁 지도부였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구미본부는 이들의 노조결성을 지원하였다.²⁹⁾ 구미지역 대공장노조들(대우, 금성사, LG전선, 오리온전자 등)이 대부분 어용노조인 가운데 오리온전기 노조원들이 노조민주화를 요구하며 농성과 파업에 돌입했고 스피커 제조업체 한국산우드에서 노조가 결성되었다. 1987년 하반기 학생운동출신 현장취업자 서상학은 계림공업 노조를 결성하고 해고당하기도 했다.

포항지역은 1979년과 1980년대 초반 전민노련의 이태복, 김병구 등이 지역 노동운동과의 연계를 모색하기도 했으나, 오랜 기간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의 불모지였다. 이는 '포철왕국, 박태준 왕국'으로 불리우는 포항제철의 오랜 노조탄압의 결과였다. 본격적인 노동자대중의 진출은 1985년 포항 오거리를 중심으로 13개 택시노조의 노조원 5백여 명이 참가한 동맹파업에서 비롯되었다. 이어 1987년 전국적인 노동자투쟁의 여파 속에서 포항지역에서도 민주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7년 포철 협력업체인 한진기업에서 노조결성을 추진하던 김병일이 해고, 구속되고, 포철 제철 협력업체로 유일하게 영남통신³⁰⁾의 노동자들과 포항제철 연관업체, 강원산업,³¹⁾ 부산과

29)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 배태선의 구술자료

30) 포철 협력사인 영남통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포항제철은 정문 출입을 봉쇄하고 영남통신과 협력계약을 취소한다. 결국 영남통신 노동자들은 포철 정문 앞 농성, 형산강 다리농성투쟁 등 처절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포철자본의

이프, 현대종합금속, 흥화공업, 오리알, 고로시멘트, 조선내화, 한국전열, 동부제강, 동국산업 등 12개 업체와 14개 택시회사 노동자들이 투쟁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포항제철 협력업체인 로공업, 삼풍공업, 한진기업 등의 경우 포항제철의 하청철회 압력으로 인해 좌절을 겪었으나,³²⁾ 1988년 조선내화, 제철설비 등 3사 투쟁을 선두로 19개 협력업체 외 41개 업체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강원산업, 풍산금속에서 민주노조가 건설되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³³⁾

1987년 포철의 폭압적인 노조탄압을 경험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이후 “최소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친다”, “연대투쟁만이 노조승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교훈을 얻고,³⁴⁾ 노조설립 준비과정에서부터 마치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비밀리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몇 개의 협력업체와 함께 연대하여 노조설립투쟁을 모색하게 된다.

(3) 1988년부터 1996년까지 : 지역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성장기

① 객관적 정세

1987년 급격히 증가하였던 국내 노사쟁의건수는 1988년에 1,873건, 1989년엔 1,614건, 1993년에는 130건, 1994년에는 106건으로 감소된다. 그러나 외형적인 쟁의건수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노동자들의 삶의 조건은 더욱 악화되어갔고, 1989년 3월 지하철 노동자 투쟁,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투쟁 등 연이은 전국적 차원의 투쟁은 1987년 대투쟁의 자생적, 일시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노동운동으로의 발전을 재촉했다.

자동차, 중공업(현대 계열 및 대우계열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및 조선 등) 중심의 노동조합이 매년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선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별로 연대조직된 지역노동조합연합조직이 해당 지역 단위 중소기업장의 파업을 지휘하면서 점차 기존 ‘한국노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어갔다. 1988년 7월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결성하여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노동법개정투쟁을 전개하면서 1989년 3월 <전노협 준비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전평 이후 최초의 전국적 자주적 노동운동체, <전국노동조합협의회(全勞協)>를 1990년 1월 결성하였다. 결성 당시 전노협은 전국 14개 지역 노조조직과 2개 업종노조협의회에 속한 6백여 개 단위노조 조합원 20여만 명이 가입하였다. 또한 차별임금 철폐, 고용안정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노동 3권 완전 쟁취, 여성노동자 차별 철폐 등 12개의 강령을 내세우고, ‘평등세상 앞당기는 전노협’의 기치를 뚜렷이 했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가입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준을 요구하는 노동법개정투쟁

거대한 벽에 부딪혀 좌절하고 만다.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포항시협의회, 『포항민주노조운동 10년사』, 1997, p.10.

31) 1987년 초 무렵 소모임을 가져오던 최영민, 정평수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시위를 주도한다. 당시 강원산업노동자들의 구호가 “쭈쭈바도 100원인데 호봉 30원이 웬말이냐”였는데, 강원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소식은 삼시간에 확산되었고, 현대종합금속, 부산파이프, 흥화공업, 조선내화 노동자들과 포항 철강공단 32개업체 노동자들이 연이어 파업을 선언하였다. 위의 글, p.9.

32) 1987년 당시 파업현장에서 즉각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포항공단에 9개 노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포철의 하청계약 철회압력으로 동양석판, 조선내화, 한국전열 등 3개 노조는 자진해산하였다.

33)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1970-2000』, 현장에서 미래를, p.133

34) 민주노총 포항시협, 『포항민주노조운동10년사』, 1997.

은 전노협의 성격과 투쟁방향을 보여준 대표적인 투쟁이었다. 전노협뿐만 아니라 업종회의, 대기업노조, 한국노총 산하 일부 노조 및 전국노련과 전국노운협 등 정치적 노동운동단체들까지 참여한 <ILO공동대책위원회>(1993년)는 기업별 노조체계하의 폐쇄적 노조 관행을 극복하고 임금인상투쟁에 머물고 있는 노동운동의 내용적, 정치적 발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1993년 메이데이 기념 대회, 그해 5월과 6월에 걸친 강제적 구조조정 반대, 고용안정 쟁취를 내건 전국적 총파업투쟁을 거쳐, 1994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전노대)>로 결집한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 민주노조 진영은 1995년 11월 11일 연세대 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의 뜻을 대표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창립하였다. 민주노총은 업종(산업)별 연맹(협의회)를 종축으로, 지역본부(협의회)를 횡축으로 하여, 기업별 노조체계를 타파하고 산업별 단일노조를 기축으로 전체 노동조합의 통일단결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³⁵⁾ 민주노총에는 15개 산업별(업종) 조직과 8백 61개 노조 조합원 41만 8천 154명이 가입하여 있었다. 민주노총 창립은 1987년 이후 계속된 민주노조 운동노선의 승리였으며, ‘민주노조 총단결’ 구도가 1차 완성되었음을 의미했다.³⁶⁾

②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의 흐름

1987년 이후 대구지역 노동쟁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섬유와 금속부품하청을 주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들이 밀집한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1987년에서 1990년 사이 서울과 전국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표 1> 연도별, 지역별 임금

시도/연도	1987	(수준)	1988	(수준)	1989	(수준)	1990	(수준)
전국	378,560	(87.8)	446,800	(88.4)	524,638	(89.9)	616,765	(88.7)
서울	431,429	(100.0)	505,261	(100.0)	583,320	(100.0)	695,029	(100.0)
대구	362,252	(84.0)	386,423	(76.5)	449,701	(77.1)	532,105	(76.6)
경북	355,360	(82.4)	448,717	(88.8)	543,181	(93.1)	621,422	(89.4)

자료 : 대구시, 『대구시사』 3권, p. 1075. 도표를 재정리한 것임.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쟁의건수는 1987년을 정점으로 1988년, 1989년에 가장 집중된 것으로 집계된다. 대구지역의 노사쟁의건수는 1987년 166건, 1988년 139건, 1989년 156건으로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가 1990년에는 33건으로 격감하고, 1991년 23건, 1992년 21건으로 줄어드는 양상이었다. 반면, 쟁의 건당 지속 일수는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87년 5.3일이던 것이 1988년 10.1일, 1989년에는 19.2일, 1990년 19.1일, 1991년 18.2일, 1992년 20.1일로 급격히 늘어났

35) 민주노총 건설계획(안), 『민주노총 대구지역협의회(가칭)추진위 구성을 위한 초동주체 2차모임 회의자료』(1994.10.25).

36) 이준성, 앞의 글.

다. 이는 1987년 이후 폭발적 노동자투쟁이 정권과 자본 측의 노골적인 노조탄압, 노동통제로 인해 외형적으로 쟁의건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투쟁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 동안 대구지역에서 전개된 주요 노동자 투쟁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은 1987년 노동자대중투쟁의 자생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쟁의사업장별 공동투쟁, 지역간 연대투쟁이 본격적으로 시도된 해였다. 지역차원의 임투전진대회, 임투소식지 발간, 체계적인 투쟁지원활동이 시도되었다. 이 시기 한국LBI, 오대금속, 태양어패럴 등이 연대투쟁으로 민주노조를 건설했으며, 노조탄압에 항해 지역 연대투쟁 집회를 개최하였다. 경대병원, 파티마병원, 시립교향악단, 지역건축설계노조, 지역인쇄노조, 매일신문 노조, 지역 목욕업노조 등에서 신규노조가 건설되고, 동원금속, 남선경금속 등에서 노조민주화투쟁이 이어졌다.

한편, 지역 학생운동 출신 계 그룹들의 통합노력은 1988년 8월 15일 선진노동자조직 <대구노동자협의회(약칭 대노협)>의 창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1988년 10월 노동법개정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의 연대수준은 더욱 향상되고, 그 연장에서 1988년 12월 7일 대구·경북지역노동조합연합 준비위원회(30개 노조참여)가 결성되면서, 지역 민주노조의 전투적 기풍은 최고조에 달했다.³⁷⁾ 1989년 벽두 노태우 정권의 민중운동에 대한 반격이 개시되면서, 대구지방노동청에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에 항의하는 삼공전자, 대하통상, 대하염공 노동자들을 강제진압하며 7명의 노동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노련 준비위>, <오대금속 노조탄압 분쇄 3공단대책위원회>와 지역노동자들의 대규모 항의집회가 전개되기도 했다.

1989년 임투는 남선물산을 중심으로 대하염공, 대하염공, 염색공단이 참여한 <염색공단 임금인상공동대책위원회>, 동원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임투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전교조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업종별 공동투쟁과 지역적 연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9년 5월 대성탄좌 문경광업소 노동자 1,600여명은 임금인상, 도급제 철폐,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는 파업을 전개하였다.

1989년 11월 8일 <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대구노련)>이 18개 노동조합, 4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하였다. 대구노련은 결성선언문에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기치아래 자본과 권력의 억압과 회유에 단호히 맞서 나감은 물론 노동귀족에 의해 타락되고 왜곡된 어용노동조합의 역사적 오물을 걷어치우고 노동자의 완전한 권익과 참 자유와 해방”을 위해 매진할 것을 결의하였다.³⁸⁾

한편, 전노협 건설(1990. 1.22)로 노동운동의 전국적 구심이 마련되면서 정권과 자본 측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저항도 강렬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1990년 1월 20일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회의’이후 전국의 쟁의

37) 대구노동자협의회, 「정책자료집」제1호, p.120, 노동분야 자료집 II-① 수록.

김찬수, 이병수의 구술자료.

38) 대구지역 노동조합연합, 「대노련 결성선언문」(1989.11.8).

사업장에 대한 공권력투입이 난무하는 가운데 연행과 구속이 줄을 이었고, 노동자들의 구호도 ‘전노협사수, 민주노조사수’, ‘민중생존권 쟁취’, ‘노정권 퇴진’으로 모아졌다. 1990년 상반기 대구노련은 노동운동탄압분쇄 공동전선, 업종별 공동 임투 등 개별 사업장의 생존권적 요구투쟁에 한정되지 않고 총자본의 공세에 총노동의 대응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³⁹⁾ 이 시기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투쟁은 전투적 민주노조의 전통을 보여준 남선물산을 비롯 대하염공, 대하염공 등 염색3사 공동파업과 대우기전 노조민주화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대하염공의 경우 4차례의 공권력 투입, 14명 연행 11명 구속, 남선물산의 경우 5차례에 걸친 공권력 투입, 대량 구속사태를 낳는 등 정권의 핵심 노조에 대한 탄압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고,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연대투쟁의 강화로 완강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남선물산 노조는 1989년 임금인상투쟁에 이어, 1990년 회사 측의 노조간부 고소, 구속사태에 맞서 회사 굴퓏에서 60일간의 농성을 벌이며 110일간의 끈질긴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비슷한 시기 청도 주신기업 노조위원장 최태욱이 임금체불, 노조탄압에 항거해 분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대구지역 노동단체들과 민주단체들은 즉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연대지원투쟁을 전개하였다.

1991년 5월 전국적으로 잇따른 분신항거가 계속되는 가운데 5,6월 전국총파업투쟁이 전개되고, 대구지역에서는 동산의료원, 파티마병원, 지역 택시노동자 등 공익 사업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직권중재라는 절차를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기계금속분야는 (주)아신과 신광기계가 임투를 수행하고, 대동, 영풍제관, 경동산업 등 논공지역 공장들이 활발했다.

1992년 정부는 일정규모가 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고임금노동자’의 임금을 5% 이내로 억제하는 총액임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대구지역은 대동공업 노조가 총액임금제 분쇄를 내걸고 49일간의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여 전투적 노조운동의 맥을 이었으나 1993년은 김영삼 정권의 출범으로 개별 노동조합 단위에서의 투쟁은 소강상태를 맞는 가운데 동협정밀 노조가 23일간의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고, 동산의료원에서 민주노조제건을 위한 힘겨운 노력이 있었다.

1994년은 6월 초 택시파업을 시작으로 철도-지하철 연대파업을 주도한 전지협 대구지부의 파업투쟁이 전개되었고 지역차원에서는 전지협 연대파업에 따라 파티마 병원에 즉각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규탄대회와 선전전이 진행되는 등 1989년 이후 지역에서는 가장 완강하고 전투적인 대중투쟁이 전개되었다.⁴⁰⁾ 뒤이어 대동공업, 대우기전, 상신브레이크노조가 달성지역을 중심으로 1개월여 완강한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대우기전 파업의 경우, 회사 측이 단체교섭을 회피하면서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였고, 노조간부들은 회사 굴퓏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하였다. 결국, 회사 측의 유도로 공권력이 투입되었고, 헬리콥터와 최류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300여명의 농성노동자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우기전 인근에 위치한 대동공업 노조는 대우기전 노조파업에 대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며 기계를 끄고 가두로 진출, 격렬한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대구지역은 이 시기 달성지역 공단의 금속사업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자투쟁의 중심지가

39)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1990.10.24).

40)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94년 사업보고 및 평가, 「대구노련 제 5기 10차 운영위원회」(1994.12.27) 회의자료

형성된다. 1988년대부터 성장한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 외 대우기전, 대동공업 등 중, 대규모 사업장에서 민주노조가 자리를 잡았다. 1994년 달성지역 금속 4개사의 투쟁은 임금가이드라인 분쇄와 어용 노총해체를 대중적으로 천명하면서 지역 노조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1995년은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병원노련 공동투쟁에 대한 지역내 민주노조들의 연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⁴¹⁾ 대구지역민주노총추진위는 '95공투본을 중심으로 산업, 업종별 공동실천과 공동사업의 강화, 시기집중을 통한 총력투쟁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임투승리와 산별노조-민주노총의 토대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각 단사별 임투가 개별화되어 애초의 목표실현이 미진했으며 특히, 금속와 섬유에서 중심사업장의 부재가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⁴²⁾ 영남대의료원의 직중중재철폐투쟁, 경북대노조의 150여일간에 걸친 장기파업, 대동공업, 의보노조 파업, 동협정밀, 그리고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남대의료원 노조는 고질적인 인력문제 해결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철폐를 위해 지역적, 전국적 연대투쟁(1995.-9. 2. <영남대의료원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 결의대회>)을 전개하였다.

한편, 1995년 투쟁을 거치면서 대구노련(1989~1996년) 가입노조와 병원노련, 전교조, 사무금융노조 등 '전국업종회의'에 참여한 지역소속 노조, 그리고 새롭게 민주노조 대열에 합류한 사회보험노조, 한국통신노조 등 공공부문노조 등이 참여하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민주노총 건설논의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구미지역 노동운동은 1989년 4월과 5월에 걸쳐 폭발적인 노동자투쟁을 경험했다. 오리온전자, (주)정화, 한국IG모터, 승리전자, 한국콘트로닉스 등에서 노조결성투쟁이 동시에 전개되었고, LG전선의 경우 100명이 넘는 해고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자생적 투쟁에 대한 지원사업은 1989년초 구미지역 해고노동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이 결합한 <구미노동상담소>와 1990년 이후 <구미노동자의 집>, 구미 <민중당>지부 등이 주로 담당하였다. 구미노동자의 집(대표 박영아)은 1989년 4.5월 투쟁에서 해고된 현장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결합하여 1990년대 내내 노조결성지원, 교육, 상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구미에서 처음 민주노조 연대들이 마련된 것은 1990년 1월 <구미지역 노동조합협의회>(초대 의장은 김길용 흥명공업노조위원장)가 결성되면서부터이다. 구미노협을 중심으로 이후 구미지역 공동임, 단협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1년과 1992년에 걸친 화인정밀, 양우화학 노조 결성투쟁과정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의 회사측에 의해 해고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구미2공단 내 <금오노동회관>을 열기도 했다. 1995년 4월 한국합섬의 유명노조해체, 민주노조인정요구 파업투쟁은 구미지역 최초의 대규모 연대파업투쟁으로서 회사 측의 위장폐업에 대항하여 1개월 동안 집단상경투쟁 등 도합 1년여의 장기간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33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지역 노동운동의 전투성을 확립하고 노조간 연대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투쟁을 계기로 1996년 6월 구미지역 주요 금속노련 사업장과

41) 1995년 5월 <한국통신투쟁등 공공부문 노동자투쟁 지원연대>(대구·경북 공노대) 등.

42) 대구지역민주노총추진위원회, '95임단투 평가',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대구지역 노조간부 수련회」(1995.10.28) 자료집.

화학섬유업종(한국합섬, 코오롱, 동국합섬 등)의 12개 노조가 모여 <구미노동조합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했다. 그해 오리온전기에서 민주노조파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한국합섬도 노조민주화에 성공하면서 연대회의는 더욱 공고화된다. 연대회의는 지역 노조 지원, 공동임, 단협 등 1997년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가 창립될 때까지 구미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역할을 수행한다.

포항지역은 1988년 포항제철 협력업체인 제철정비, 삼풍공업, 선일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협력3사 노조결성투쟁이 폭발한다. 협력3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포철왕국'으로 불리우는 포항지역에서 포항제철, 박태준과 정면으로 맞붙은 싸움이었다. 당시 투쟁지도부는 가족을 친지에 피신시켜가며 높은 결의로 투쟁에 임해⁴³⁾ 결국 그해 6월 28일 포항제철과 협력업체는 노조를 인정한다는 항복선언을 하였다. 포철의 철용성이 무너지자 포철을 비롯 협력업체들의 노조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60여개 노조가 설립되었다. 노동자들을 11월 10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최초의 연대조직인 <협력업체 노동조합연합>을 결성했다.

한국최대 방위산업체인 풍산금속 안강공장은 1988년 6월 폭발사고로 숨진 정구일씨 사건을 계기로 노조결성과 지부인정 투쟁, 해고자복직투쟁을 연이어 전개했다. 1989년 1월 2일 새벽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5천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고, 포항지역 민주단체들은 시내 곳곳에서 시위와 투석전을 전개, 1월 11일 하루 동안 106명의 노동자가 연행되기도 했다. 지역 연대투쟁의 결과 1989년 2월 32개 노조를 중심으로 <포항지역 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초대 위원장 장영태 제철정비 위원장)가 결성된다. 민노협 준비위는 삼정강업, 제철복지회, 대진공업노조 결성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1990년 초 포철 측의 업력업체에 대한 계약취소 압박에 의해 협노련이 민노협 준비위에서 탈퇴하고, 불과 3개월 만에 가입노조 대부분이 탈퇴함으로써 포항민노협준비위는 와해되고 만다. 이후 연대의 구심이 사라지고, 포항지역 노조는 산발적인 투쟁으로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전개한다. 1990년 7월 포항제철의 민족포철 노민추 조직이 선거에서 승리, 민주노조가 들어선 것을 계기로 강원산업, 제철정비, 풍산금속 노조가 교류를 추진하여 다시 연대조직 재건에 준비해갔다.

1991년은 포철의 치밀한 노조와해공작으로 대규모 노조탈퇴가 잇따르며 포철노조가 와해되고, 지역 노조 집행부도 대부분 해고되는 등, 지역 전체가 침체상태로 접어든다. 그 와중에도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중심이 되어 태성, 동남, 동식, 동일철강 등 7개 노조가 모여 <포항지역

43) 당시 협력업체 3사의 투쟁지도부의 계획은 3단계로 되어있었다. 1단계는 각 단사 부위원장단을 중심으로 포항시청을 에워싸고 노조설립신고서 제출을 가로막고 있는 회사관리자를 뚫고 직접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2단계는 1단계가 실패할 경우, 각 단사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상경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대동하고 노동부에 직접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3단계는 그마저도 실패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한 우편접수 방법이었다. 결국 1단계에서 시청 유리창이 터지는 등 아수라장 끝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했고, 곧이어 평민당사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날 저녁 협력업체 관리자 등 수백 명이 평민당사 2층 천장을 도끼와 해머로 부수고 난입, 농성노동자들을 끌고 가는 사태가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제철정비, 삼풍공업 등 1,200명의 출근 노동자들이 작업거부하고 농성에 돌입하였고, 6월 28일 결국 포철과 협력업체는 노조인정 등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포항시협, 「포항민주노조운동10년사」, 1997.

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결성, 지역 노조연대의 틀을 다시 정비한다. 대표자회의는 1993년 포항 지역 5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의 40일간 노상천막농성투쟁에 이끌었고, 4년여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1995년 3월 29일 <포항지역 노동조합협의회>를 창립, 민주노총 지역조직 건설로 나아간다.

(4) 1996년부터 현재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산업별 노동운동으로의 전환기, 조정기

① 객관적 정세

1993년 뒤부터 김영삼 정부는 노동운동 진영의 온건노조 지도부의 입지를 살려주려고 그들에게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시늉을 했다.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들은 '재야 노동계'에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만약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과 쟁의 제한 규정들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1994년부터 본격화되었고 1996년에 '노개위'(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발족되었다. 파행을 거듭한 후, 19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의원 150여명이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11개법안을 날치기로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친 총파업을 주도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결국 노동법은 1997년 3월 8일 여야 합의 하에 다시 개정, 통과되었지만, 복수노조 허용 외에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등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이 2년 후 대규모 정리해고를 예고하고 있었다.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신청 후 대규모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기업도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1970년대 이후 연 8%대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98년 -5.8% 성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 결과 400여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① 자본과 정권의 일방적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중단 ②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보장 ③ 임금삭감중단과 임금안정 ④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개혁(실업부조, 물가, 세제, 4대보험) ⑤ 재벌총수의 재산환수와 경영권 박탈, 노동자의 경영참여권 보장 ⑥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재벌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맞섰다.

한리중공업은 1999년 8월 18일부터 72일간의 전면 파업투쟁을 전개하여 고용조정 시 노사합의,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원상복귀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999년 11월 14일과 12월 10일 연이은 민중대회, 노동자대회에서는 연인원 6만여 명의 노동자, 농민들이 '생존권사수·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 단축! 농가부채 해결'을 격렬히 주장하였다.

한편, 정부와 자본이 추진한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폐허 위에 대량으로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절반을 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근로자파견법 통과 이후 파견직, 계약직, 용역직, 사내 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에 내몰리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각한 상황과 양적 성장은 대기업 노조가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노동자운동에 새로운 경각심과 전투성을 불어넣었다. 2000년 한 해 동안 벌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요 투쟁으로 KBS, MBC, SBS, YTN 등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반대투쟁, 4월 대상식품 사내하청 노조의 노조사수투쟁,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재계약 거부 철회투쟁, 삼창프라자 시설관리

노동조합의 노조사수투쟁 등이 있었다.⁴⁴⁾

② 1996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의 흐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996년 3월 22일 공식 출범했다. 참여노조는 업종(금속연맹-17개 노조, 보건의료노조-7개 노조, 공공연맹-12개 노조, 화학섬유연맹-4개 노조, 대학노조-1개 노조, 여성연맹-1개 노조, 전교조 대구지부, 언론노조-5개 노조, 건설연맹-3개 노조, 민간서비스연맹-1개 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직가입노조(11개 노조) 등으로 총 2만 3천여 명 조합원(2004년 2월 현재)을 포괄하고 있다.

1996년 대구지역 민주노조진영의 주체적 조건은 금속부문의 민주노조 조직기반 축소, 병원노련의 공투 후유증, 섬유부문의 경기불황, 공공부문의 1995년 투쟁으로 인한 조직손실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대표자회의 산하에 <96 임단투 승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느 해보다 많은 노조에서 투쟁을 전개하여 경제적 요구조건을 높은 수준에서 타결짓고 단위 사업장의 노조조직력을 강화시켰다.⁴⁵⁾ 지역본부 또한 1996년 임단투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지로 각인되었다. 그러나 조합원 대중의 의식을 기업별 테두리를 뛰어넘어 산업별 의식 나아가 전국적 연대의식을 확대시키는데 한계를 보였다.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 국회 날치기 통과는 전후로 전개된 노동법날치기 철회 총파업 투쟁은 이러한 한계점을 돌파하여 지역내 민주노조의 공동투쟁과 제 민주단체와의 연대투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6년 하반기와 1997년 상반기에 걸친 노동법개정투쟁 총파업 이후 단위 노조에 가해지는 탄압에 지역연대투쟁으로 대응하면서 1997년 임단투가 전개되었다. 단위노조에 대한 탄압과 무력화공세는 합의사항 불이행(동산의료원, 태경물산, 기아자동차 영업지회), 위장폐업(쌍마섬유), 노조가입탈퇴를 이용한 노조무력화, 위원장 및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고소고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997년 8월 <노조탄압분쇄와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대구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산의료원, 쌍마섬유 위장폐업분쇄, 고용보장투쟁, 경산대, 동협정밀 노조탄압에 대응하며 지속적인 대중투쟁전선을 구축하였다. 전체적으로 대선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선투쟁 승리와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을 한 축으로, 또 경제민주화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조직화를 한축으로 진행하여 지역의 주요 대중투쟁이 노조탄압 분쇄투쟁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⁴⁶⁾ 그러나 지역본부로의 교섭권 위임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도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 등이 여전히 기업별노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재확인 시켜주었다.

1998년은 현장대중의 요구에 기반해서 '정리해고제 철폐, 고용안정 쟁취, 생존권 사수'라는 투쟁기조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탈퇴, 총력투쟁을 전개하였다.⁴⁷⁾ 1998년 한 해 동안 국제정공

44) 민주노총,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 미래를, p.267.

45)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96임단투 평가』, 『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1997.3.29)

46)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97사업보고』,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자료』(1998.3.4).

(3.2), 갑을금속(10.21), 대구지역 건설노조(1.23), 대구지역 전기원 노조(2.22) 등 등 신규노조가 21개 결성되었고, 대구백화점, 국제정공, 갑을금속, 대우차 노조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와 집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단위노조의 현장조직력이 유례없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주요 투쟁은 대표자 수준의 선언적 결의에 머물고 실제 대중적 결의와 조직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1996년 출범이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역 민주노조의 구심체로서 평등사회 건설,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1996년 6월 달성공단 대동공업 파업, 영남대의료원, 동산의료원 해고자 복직 농성 지원투쟁, 1997년 1월 15일 대구지역 노동자 8천여 명의 도심시위와 노동법 개악철회 전국총파업, 1999년과 2000년 주5일 근무제 등 노동현안 관철 전국총파업, 그리고 최근의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반대, 비정규직 철폐투쟁 등 지역 노동자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구미지역은 <구미노동조합연대회의>가 주도한 1996년 12월 노동법개정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7년 4월 30일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초대의장 김원배 코람프라스틱 노조위원장)를 결성했다. 현재 민주노총 구미협의회를 중심으로 1997년 7월 한국전기초자 임단협투쟁, 1998년 오리온전기 워크아웃 결정, (주)보광 노조건설 투쟁, 1999년 대하합섬 유명노조해체, 노조민주화 투쟁,⁴⁷⁾ 한국전자(현KEC), 한일건재 노조 파업투쟁, (주)대광, (주) 보광 노조 파업을 거쳐 2000년 제일합섬(현 새한) 노조의 40일간 상경투쟁, 코오롱 파업,⁴⁹⁾ 한국 니타모아 노조건설 등 지역 민주노조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2004년 5월 현재 민주노총 구미협의회에는 오리온 전기, 코오롱, 금강화섬, KEC, 코람 등 16개 노조, 9,600여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포항지역은 <포항지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지역조직 건설논의가 시작되었다. 포항지역 노조들에 1995년 12월 6일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건설을 위한 제안문이 배포되고 현장별 간담회, 간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96년 10월 9일 18개 노조, 5,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포항시협의회>(초대의장 이희재 동국산업 노조위원장)가 결성되었다. 포항시협은 그 후 활발한 연대투쟁을 벌였는데, 1996년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 때에는 강원산업을 선두로 동국산업, 태성기공, 동남상운, 건설노조 등 지역 15개 업체가 파업투쟁에 참여했고, 1999년 포항공대노조 지원연대투쟁을 거쳐 지역 연대투쟁의 구심으로 자리 잡았다. 2004년 5월 현재 50여개 노조, 1만 5천여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47)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4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1999.1.27).

48) 대하합섬은 회사 측이 유명노조를 등록해놓고 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을 교묘히 탄압해왔다. 대하합섬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는 YMCA 등 구미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유명노조 해체와 신규노조 등록을 거부하는 구미시장퇴진서명운동을 전개했다(시민 6만 명 참여). 결국 노동자들의 승리로 끝맺었다.

49) 2000년 7월 4일 지역 노조들이 코오롱 회사 담벼락에서 천막을 치고 지원 농성을 벌였다.

3) 대구·경북지역 주요 노동운동단체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단체-01
창립일	1989. 11. 8.	해체시기	1996. 2.
소속단체/지부(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급단체 :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가입단체 : 남선물산, 대동공업, 경북대병원, 파티마병원, 대하염공, 태화염공, 삼공전자, 쌍마섬유, 동원금속, 한국LBI 등 대구, 달성지역 소재 15개(창립시)에서 20여개 노조, 총 1800여 조합원 가입.		
창립배경과 과정	1988.11. 오대금속 탄압분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1988.12.31. 파티마노조 파업 지역 공동투쟁/ 노동법개정투쟁, 1989. 2. 대구노동청정거농성투쟁과 1989년 임투 공동투쟁본부 활동 등을 거치며 반이용노조, 민주노조탄압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커지며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창립준비위 결성(1988.12). 1989.11. 8.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대구노련) 창립. 1996. 3.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로 발전적 해체.		
조직 내용	의장-부의장-상근부서(정책, 편집, 총무, 조직, 교선, 문화, 쟁의, 선봉대)		
기관지명	"대구노동자신문"(1989.11~?)		
주요 활동가	'대노련 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양재복 대동공업노조위원장) 초대의장(1989~1991년) : 유영용(한국LBI노조위원장) 2대의장(1992~1994년) : 정우달(오대금속) 3대의장(1995~1996년) : 박용선(대우기전노조위원장)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민주노조 지원 연대사업, 민주노조탄압 공동대응투쟁, 산별노조 건설투쟁, 전노협 사수 활동내용 : 조합원 현장교육 프로그램, 강연회, 임금인상 및 임단협 지원, 연대 투쟁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 1987년 이후 지역 민주노조 건설투쟁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지역연대 조직으로 전환. 지역 최초의 민주노조연대조직으로 발전. 전노협 사수투쟁의 모범으로 평가(남선물산의 경우). - 1996.3.22.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로 발전적 해체.		
관련자료(창립선언문, 규약)	자료집 참조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관리번호	대구·경북- 노동단체-02
창립일	1996. 3. 22.	해체시기	활동 중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급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단체 : 업종(금속연맹-17개노조, 보건의료노조-7개노조, 공공연맹-12개 노조, 화학섬유연맹-4개 노조, 대학노조-1개 노조, 여성연맹-1개 노조, 전교조 대구지부, 언론노조-5개 노조, 건설연맹-3개 노조, 민간서비스연맹-1개 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직가입노조 (11개 노조) 총 2만 3천여 명 조합원 가입.		
창립배경과 과정	-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1989~1996년) 활동의 평가 작업과 함께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대구노련 가입노조와 "전국업종회의" 가입노조(병원, 전교조, 사무금융)를 중심으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준비위원회" 구성. - 1996. 3. 22.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창립.		
조직 내용	의장-부의장-상근부서(정책, 편집, 총무, 조직, 교선, 문화, 쟁의) ↳ 특별위원회(통일, 정치)		
기관지명	발간 준비 중		
주요 활동가	정우달(43세, 1996~1997, 2003~현재 지역본부 의장) 이정립(44세, 1998~1999년 지역본부의장) 김명환(41세, 현 사무처장)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민주노조 지원연대, 산별노조 건설, 평등사회건설 활동내용 : 입단협 지원, 노동문제 상담, 노조건설 지원, 교육, 선전사업 등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로서 전국 및 지역 총파업투쟁을 주도.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자료집 참조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대구노동교육협회	관리번호	대구·경북- 노동단체-03
창립일	1990. 9. 26.	해체시기	1999. 8. 14.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급단체 :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창립배경과 과정	- 전노협 창립 이후 노동운동의 합법화 경로를 모색. 계급적 입장을 강조하며 시기, 정세별 투쟁방침과 평가 및 정책생산, 민주노조 지원, 노동교육, 입단협 지원 등 노동문제 상담을 목적으로 창립. - 1999년 8월 "대구민주노동자의 집"과 조직 통합하면서 해산.		
조직 내용	대표 - 상근부서 : 정책, 조직1(섬유), 조직2(금속), 조직3(업종, 공공, 교선, 문화, 쟁의) 등		
기관지명	"평등세상"(1992.1~1993.5), "노교협통신"(1995.2~1999.8) 발간		
주요 활동가	손호만, 최윤영, 정수경, 신 강, 람보(가명), 콩치(가명) 상근자 5~6명, 회원 30~40명.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노동정책생산, 민주노조 지원연대, 노동교육 활동내용 : 1992년 대우기전, 1991년 동산병원, 남선물산 등 파업지원, "평등세상"등 기관지 발간, 월례 토론회, 강연회, 자료집 발간, 현장 교육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 1990년대 지역의 대표적 노동운동단체. 전국노련 가입단체로서 노동현장 지원사업과 노동정책생산. 1999년 "대구민주노동자의 집"과 조직통합하면서 "현장연대" 결성.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노동자의 미래를 열어가는 현장연대 (약칭 현장연대)	관리번호	대구·경북- 노동단체-04
창립일	1999. 9.	해체시기	2003. 2.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급단체 : 전국노동단체연합(전국노련).		
창립배경과 과정	- 1999. 8. “대구노동교육협회”와 “대구민주노동자의 집”이 조직 통합하면서 결성. - 2003. 2.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민중행동”으로 조직 전환(노동운동뿐 아니라 주민운동, 여성, 생태, 학생, 문화 부문을 포괄)		
조직 내용	총회 - 운영위원회 - 사무국 (상근 6~9명) └ 정책실 └ 현장모임(단위노조별, 업종별, 회원 50~60명)		
기관지명	후원회 소식지 “더불어 함께”		
주요 활동가	김용철(45세, 대표), 정수경(41세, 대표, 정책실장), 신강(38세, 정책부장), 양영실(38세, 사무국장), 서창호, 서장수(34세)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노동정책생산, 민주노조 지원연대, 노동교육 활동내용 : 정책교육사업 (“노동교실” 운영, “월례 정세토론회” 등) 민주노조지원사업(동원금속, 굿맨손 공사, 삼일산업, 한국통신 비정규직 등)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 2003년 조직 전환 이후 “신자유주의 반대를 위한 민중행동” 결성. 성서공단 노동조합(대표 김용철) 창립, “노동자의 눈”(대표 정수경, 노동교육, 영상 제작) 창립, 개별 현장 취업 등으로 분화.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성서공단노동조합	관리번호	대구·경북- 노동단체-05
창립일	2002. 10. 17.	해체시기	활동 중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급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지역노조로 가입 가입단체 : 성서지역 국제정공, 대원합섬, 동협정밀, 현대금속 등 민주노총 가입 노조와 함께 활동		
창립배경과 과정	성서지역 중소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세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결성. 성서지역은 중소 영세기업이 밀집된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공단으로 1600여 업체에 4만여 명의 노동자가 있다. 현재 노조조직율은 1% 미만으로 민주노총 가입노조 5개, 한국노총 가입노조 10여 개가 존재.		
조직 내용	대표 - 사무국, 이주노동자사업부, 교육상담, 현장위원회		
기관지명	“성서공단소식”(주1회)		
주요 활동가	김용철(45세), 신강(38세), 김현주(44세), 박찬희(36세) 상근자 5명, 회원 40명.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지역 노조건설 확대, 노조지원, 교육상담, 이주노동자 문제 활동내용 : 아세아 시멘트, 들풀(지역노동자모임) 이주노동자모임 등 현장 위원회 활동, 성서공단 노동자학교 개설, 소식지 발간 배포 등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성서공단 지역노조로서의 성격과 함께 지역 노동자를 위한 현장 상담소 역할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기독교 대구노동자의 집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단체-06
창립일	1992. 5.	해체시기	1999. 9.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창립배경과 과정	대구지역 민중교회("주민교회", "달구벌교회", "이웃교회" 등) 소속 노동자 상담 활동가, 평신도를 중심으로 조직. 선교의 의미보다 교회내 노동자활동에 중점. 이후 "대구민주노동자의 집"으로 명칭변경 한 후, 1999년 "대구노동교육협회"와 조직 통합, "현장연대"로 확대 개편.		
조직 내용	회원조직, 대표 - 사무국(조직, 교육선전, 문화) 상근자 3~5명, 회원 30명.		
기관지명	"노동계급"(민주노동자의 집 내부기관지, 월2회 발간) 후원회 소식지 월1회 발간.		
주요 활동가	조만희(50세, 대표), 김용철, 하상모(34세, 동원금속 노조원), 김희정(32세 금속노조 대구지부)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노동문제 상담, 노동자교육활동, 노동자문화공간 활동내용 : "노동교실"(3개월 교육과정, 주2회 운영, 11기까지 배출) "문화교실", 국제정공, 동원금속 노조건설과 민주화 지원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1990년대 노동현장 교육활동과 노동자문화활동의 거점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대구노동자회 일벗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단체-07
창립일	1994. 1.	해체시기	2000. 10.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연관단체 : 한.노.협		
창립배경과 과정	- 1992년 '8.15 범민족대회' 참가 노동자들과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을 모색. - 대구지역 노동자 10여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임 추진. - 1994년 일벗 창립		
조직 내용	대표 - 상근자 - 현장모임(노조활동 중심)과 취미소모임(교양)		
기관지명	"일벗"(월1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		
주요 활동가	정창용, 김대용(39세, 상신브레이크노조위원장), 박해일, 이대영, 이종진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저변화 대중화 활동내용 : '범민족대회' 노동자지원 참여활동, 지역노조연대활동(상신브레이크 노조, 서구산업 노조민주화투쟁 지원), 현장모임 중심으로 교육 문화 활동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노동자 통일운동의 저변화, 민주노조 지원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대구노동자협의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단체-08
창립일	1988. 8. 15.	해체시기	1994. 1.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급단체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 가입단체 : 회원조직		
창립배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이후 대구지역 민주노조운동과 대학출신 노동운동 활동가조직의 결합체. - 1986년 민통련산하 '민주노조지원노동자공동위원회'와 대학출신 노동운동 활동가 비공개그룹의 통합조직. 1987년 전국적인 노동자 대투쟁과 1988년 '임투대책위'를 거치며 통합을 모색한 후 1988년 8월 15일 창립. 		
조직 내용	대의원대회 - 의장 - 중앙위원회 - 중앙집행위원회 - 노조사업부 / 사무국 / 연대사업부 / 조직부(이상 비공개), 공개 사무실은 의장 - 사무국장, 교육 등 상근자 중심으로 운영.		
기관지명	"선진노동자의 길잡이 동지" (1990년 전노협 출범이후 발간, 대노련 기관지 '대구노동자신문' 후신)		
주요 활동가	박주철, 이태광, 김찬수, 김영옥, 박영진, 최정수, 안현수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대중투쟁 강화, 민중투쟁전선 강화, 노동자 정치세력화 활동내용 : 활동가 현장활동 교육, 지원활동, 민주노조지원, 노동자정치세력화, 지역 전선체 강화 등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대구·경북지역 민족민주운동연합'등 지역 전선운동체의 주축. 1980년대 지역 최대의 노동운동 활동가 조직. 현장중심의 계급적 실천노선.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첨부		
비고			

민주화운동 단체 관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말 대구노련과의 사업분리 후, 1992년 5월 대구지역 노동운동단체협의회(대구노운협, 주요활동가 : 김찬수, 안현수, 이병수, 이성경)을 창립하면서, 노동사랑(3공단지역 금속부품업체, 택시등), 서부노동회관(달성, 성서지역), 대구노동상담소(염색공단), 대노협(연대, 상층사업, 센터역할)으로 조직 전환.(기톨릭 노동사목 참여). - 이 즈음 대노협 회원 배성호, 박은성 등은 "노동자료연구실"(이후 대구노동정책연구소로 발전)을 개설해 분리. 분리의 배경은 대노협내부의 조직운영, 대중노선을 둘러싼 논쟁(과학적 정치적 이념적 분리는 아님). - 이후 1993,1994,1995년간에 걸쳐 대구노운협 내부 '혁신논쟁' 전개('두개의 중앙', 노운협 비상대책위 체제) - 1995년 8월 김찬수 대표체제가 들어서면서 대구노운협 정상화. - 2003년 8월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와 함께 대구노운협 공식 해산.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일꾼의 집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단체-09
창립일	1988.	해체시기	1990. 9. 26.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창립배경과 과정	1988년 말경 대구지역 대표적인 민중교회인 달구벌 교회내 노동활동가(손호만 등)들을 중심으로 "노동상담소"개설을 추진.		
조직 내용	대표(손호만) - 간사(이동기, 허은석, 박태근)		
기관지명	부정기 소식지 "일꾼의 집"		
주요 활동가	이상술, 박인주, 손호만, 이동기, 허은석, 박태근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노동자 민중해방 활동내용 : 노동자 상담, 교육활동, 현장활동가 교육학습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민중교회운동의 노동운동으로의 전화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밑거름, 대하염공, 대한중석 등 민주노조간부 배출 이후 대구노동교육협회로 통합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단체-10
창립일	1997. 4. 30.	해체시기	현재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급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단체 : 오리온전기, 코오롱, 금강화섬, KFC, 코람, 한국오웬스코닝, 차병원, 김천의료원, 한일건재, 김천축협, 기아차판매, 한국합섬, 사회보험, 파미힐스CC, 전교조 구미지회 등 16개 노조(9,600명) 가입. (업종, 산업별 연맹의 지역조직)		
창립배경과 과정	1990. 1. 구미지역노동조합협의회 (초대의장 김길용 흥명공업노조위원장) 1995. 구미노동조합연대회의 1997. 4.30.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 결성 (초대의장 김원배 코람프라스틱노조위원장)		
조직 내용	대의원대회 - 대표자회의 - 의장 - 상근집행부(사무국, 교육선전, 미조직특위)		
기관지명	"구미노동자" (격주 1회 발행)		
주요 활동가	최근성, 배태선, 김원배, 황준영, 김성현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민주평등사회, 민주노조연대, 노동자 정치세력화 활동내용 : 노조건설, 쟁의지원, 미조직, 비정규직 노조연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구미지역 민주노조 연대투쟁의 구심체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구미노동조합연대회의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단체-11
창립일	1995. 6.	해체시기	1997. 4.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가입단체 : 오리온전기, 한국합섬, 동국합섬, 코오롱 등 12개 노조		
창립배경과 과정	1995년 오리온 전기 노조선거 승리, 한국합섬 노조민주화 승리 이후, 두 노조를 중심으로 지역 노조연대조직 건설		
조직 내용	대표자회의(의장 김원배) - 사무국, 월2회 정기회의		
기관지명			
주요 활동가	김원배, 조명래, 남중곤, 김성현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민주노조연대강화 활동내용 : 노조건설, 쟁의지원, 민주노총 건설논의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민주노총 구미협의회 건설이전까지 지역 민주노조연대조직 1996. 4. 한국합섬 파업 연대투쟁 1996~1997. 노동법개정투쟁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구미노동자의 집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단체-12
창립일	1990. 1.	해체시기	2003. 10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급단체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노운협) 가입단체 : 활동가조직		
창립배경과 과정	1989년 4,5월에 걸쳐 오리온전자, (주)정화, 한국 IG모터, 승리전자, 한국콘트롤닉스 등 노조결성투쟁이 전개되었고, 이 투쟁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결성.		
조직 내용	대표 - 총무, 상담부장, 정책		
기관지명	"동향" (주간단위 발행, 이후 구미노동자로 전환)		
주요 활동가	박영아, 조명래, 배태선, 이은희, 허미영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대중투쟁 강화, 민주투쟁전선 강화, 노동자 정치세력화 활동내용 : 활동가 현장활동 교육, 지원활동, 민주노조지원, 노동자정치세력화, 지역 연대투쟁 강화 등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 대중투쟁 노선에 기반하여 1987년 이후 구미지역 민주노조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심 역할. - 구미노동조합연대회의, 민주노총 구미협의회 건설 추진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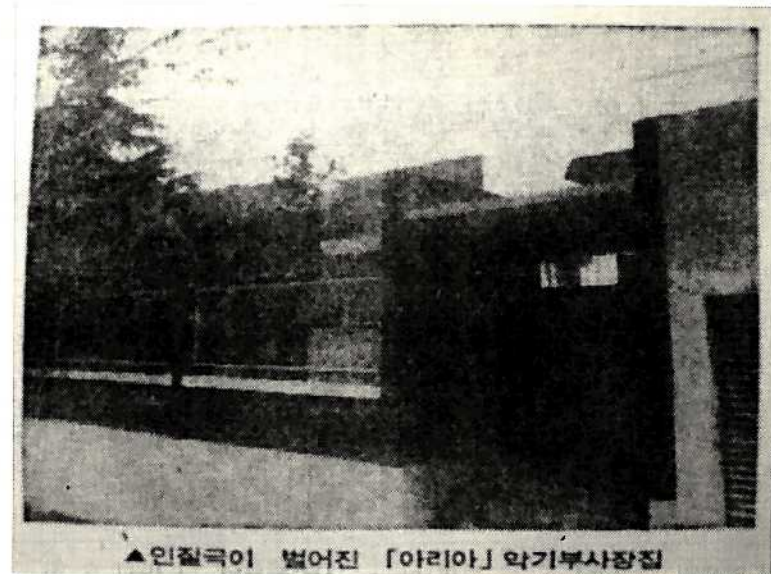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포항시협의회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단체-13
창립일	1996. 10. 9.	해체시기	현재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급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단체 : 강원산업, 포항지역 건설노조, 동국산업, 풍산금속 안강지부, 태성 기공, 전교조 포항지회, 화물연대 등 50여개 노조, 15,000명 가입. (업종,산업별 연맹의 지역조직)		
창립배경과 과정	1988. 포항제철 협력업체 노동조합연합(제철정비, 삼풍공업, 선일기업) 1989. 2. 포항지역 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 1990. 포항지역 노동조합대표자회 1995. 포항지역 노동조합협의회 1996.10.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결성		
조직 내용	경북지역본부 - 포항시협 의장 - 교육, 선전, 총무, 법규 (3명 상근)		
기관지명	"임투소식" (임투시기 주1회 발간)		
주요 활동가	이희재, 박재곤, 김성오, 김병일, 배성훈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민주평등사회, 민주노조건설, 노동자 정치세력화 활동내용 : 노조건설, 쟁의지원, 노동자정치세력화, 미조직 비정규직 연대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1996~1997년 노동법개정투쟁 주도 포항지역 민주노조연대조직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단체조사			
명칭	포항 노동문제상담소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단체-14
창립일	1988. 2.	해체시기	1989. 1.
소속단체/지부 (상급단체, 가입단체)	상근자 중심의 상담소		
창립배경과 과정	-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지역 노동운동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개설. - 1989년 1월 포항 노동자의 집으로 전환한 후, 1996년 포항시협 건설 후 해산 됨.		
조직 내용	소장 - 실무간사, 상담간사		
기관지명			
주요 활동가	김상섭(초대소장), 김봉화, 김병일, 추연만, 송창섭 등		
활동방향과 활동내용	활동방향 : 민주노조건설, 지원 연대 활동내용 : 노동자 상담, 교육, 노조건설 지원		
민주화운동에 끼친 영향	포항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출발지 1989년 포항지역 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 추진 1988년 코스틸, 동부산업, 선린병원, 성모병원, 기독교병원, 동국대병원 노동조합 설립 지원.		
관련자료(창립선 언문, 규약)			
비고			

4) 대구·경북지역 주요 노동운동 사건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1978년 아리아악기노동자인질농성사건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사건-01
위치	문헌상	대구시 대명9동 493-40		
	현주소	상동		
현재의 모습	첨부사진 참조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1970년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폭로한 대표적 사건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78. 1. 21. 오후 7:30	사건종료일	1978. 1. 22. 새벽
	관련자 / 관련단체	대구아리아악기 노동조합(연합노조 아리아악기지부)		
	법적상태	비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 1. 21. 오후 7시 30분 관리자의 폭행, 저임금, 강제예배 등에 불만을 품고 부사장 정구웅의 자택에 노조분회장 정재종(30) 등 5명의 노조원이 침입, 과도를 들고 가족을 인질로 하여 부사장 면담과 악덕기업주 처벌을 요구. - 1. 22. 새벽 악덕기업주 처벌을 약속받고 농성해제		
	정부대응	노조분회장 정재종 등 주모자 구속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사건 이후 한국노총과 야당에서 현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사회문제화.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첨부사진 참조			
관련 자료				
기타				

* 관련 사진



아리아 악기 부사장집



경찰에 자수한 노조간부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1984년 대구택시노동자파업사건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사건-02
위치	문헌상	대구역, 대구시경, 중앙주유소, 태평지하도, 대구시청 등		
	현주소	대구역, 대구시경, 대구시청, 태평지하도 등 시가지 일대		
현재의 모습	첨부사진 참조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분노한 대구택시노동자들의 자생적 항거로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켜 경산, 구미, 대전, 서울 및 부산 등지의 택시노동자들의 시위, 파업으로 파급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84. 5. 25. 새벽1시	사건종료일	1984. 5. 26.
	관련자 / 관련단체	대구지역 택시노동자 900여명 참가		
	법적상태	비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 5.25. 새벽 사납금인하, 부계완화를 요구하며 동대구역 앞에서 택시기사 5명이 동료들을 설득, 시내진출 - 90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의 동참, 시내교통마비. 운행 중인 택시방화. 26일 농성 택시기사 9명 구속, 47명 구류 처분		
	정부대응	택시노동자들과 부시장 면담. 요구조건 전면 수락. 협상 후 제일택시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 연행 구속.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이후 경산(5.26), 구미(5.29), 대전(5.30), 서울, 부산(6월) 등지로 택시시위 파급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첨부사진 참조			
관련 자료				
기타				

* 관련 사진



택시노동자들의 도심 시위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대구지방노동청접거농성사건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사건-03
위치	문헌상			
	현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현재의 모습	첨부사진 참조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1980년 후반 대구지역 민주노조연대투쟁의 상징적 사건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89. 2. 10.	사건종료일	1984. 5. 26.
	관련자 / 관련단체	대하염공 노동조합, 삼공전자 노동조합, 대하통상 노동조합 등 16개 노조		
	법적상태	비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임금인상, 노조인정, 해고자복직, 구사대문제 등으로 파업 중이던 3개사 노조가 노동청을 항의방문, 농성 중 공권력 투입 7명 구속, 10여명 불구속 등 당시 지역 최대구속자 발생. 농성이 해산된 후, 12일 대구노련(준) 주최로 노동청 앞에서 1천여 명 규탄대회 개최		
	정부대응	공권력 투입, 참가 노조간부 다수 구속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민주노조간 연대투쟁의 경험을 축적하여 1989년 <대구지역노동조합 연합> 결성의 밑거름		
현실태	관리주체	노동청사 이전	사용용도	임대
활용방안				
관련 사진	첨부사진 참조			
관련 자료				
기타				

* 관련 사진



노동청농성 강제 해산 후 다음 날 항의시위



노동청 농성 현장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남선물산 굴뚝농성투쟁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사건-04
위치	문헌상			
	현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남선물산 대구공장		
현재의 모습	첨부사진 참조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대구지역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적 사건. 60일간 굴뚝농성, 총110일간의 파업.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90. 7. 4.	사건종료일	1990. 8. 31.
	관련자 / 관련단체	남선물산 노동조합		
	법적상태	비합법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1990. 4.26. 쟁의발생결의 1990. 5.11. 1차공권력투입 1990. 7. 4. 굴뚝농성투쟁전개 1990. 8.31. 6차공권력투입, 굴뚝투쟁지도부 3명 구속 1990. 9. 7. 노조임시총회, 파업 마무리		
	정부대응	6차례에 걸친 공권력 투입.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단위노조차원에서 전노협과 민주노조사수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 이후 대구지역의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적 사례		
현실태	관리주체	1996. 10. 회사폐업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당시 사진 첨부		
관련 자료				
기타				

* 관련 사진



1990년 남선물산 굴뚝 농성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1992년 대동공업 총액임금제 분쇄투쟁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사건-05
위치	문헌상			
	현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개별 사업장의 임투를 뛰어 넘어 총액임금제 거부를 내걸고 진행된 대규모 파업사건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99. 6. 3.	사건종료일	1992. 9. 2.
	관련자 / 관련단체	대동공업 노동조합		
	법적상태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1992. 6. 3. 부분파업 실시 1992. 6.12. 직장폐쇄 6.23. 노조원 회사사무실, 정문 점거 격렬시위 6.28. 파업현장 공권력 투입, 노조원 110명 연행 7. 1. 5명 구속 노조원 200명 달성경찰서 농성 9. 2. 협상 타결, 정상화		
	정부대응	파업 주도 노동자 5명 구속(송경달, 박종석 등), 공권력 투입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노태우정권하에서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추진한 총액임금제의 반노동자적 성격을 폭로, 지역 민주노조연대에 기여.		
	현실태	관리주체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당시 사진 첨부			
관련 자료				
기타				

* 관련 사진



대동공업 노조원 시위

민주화운동 대구·경북지역 사건조사				
명칭	1995년 영남대의료원 직권중재 철폐투쟁		관리번호	대구·경북-노동사건-06
위치	문헌상			
	현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317-1 영남대의료원		
현재의 모습				
규모	부지		크기	
	용도		기타	
역사적 의의				
개별 사업장의 임투를 뛰어 넘어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철폐를 내걸고 진행된 대규모 파업				
사건의 개요	사건 발생일	1995. 7. 26.	사건종료일	1995. 9. 28.
	관련자 / 관련단체	영남대의료원 노동조합, 영남대의료원 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대구지역 대책위원회, 전국병원노련		
	법적상태			
	사건의 전개 과정과 결과	1995.7.26. 인력문제해결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돌입 8.18. 경찰1천 2백 명 투입, 노조위원장 등 농성노조원 전원 연행 병원노련 산하 전국 135개 노조 항의농성 돌입 9. 2. 영남대의료원운동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9.28. 노조간부 8명 해고 1996.3.21. 영남대의료원 노조탄압 저지를 위한 대구지역 대책위 구성, 해고노조원 복지, 조합비 가압류 해제를 주장하면서 의료원 정문에서 항의집회		
	정부대응	박용선 대구노련 위원장과 박문진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5명 구속, 8명 해고.		
	민주화운동에 미친 영향	병원 등 공익사업장의 쟁의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반노동자적 부당성에 대해 항거. 지역, 전국적 노조연대에 기여		
현실태	관리주체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지부	사용용도	
활용방안				
관련 사진	당시 사진 첨부			
관련 자료				
기타				

*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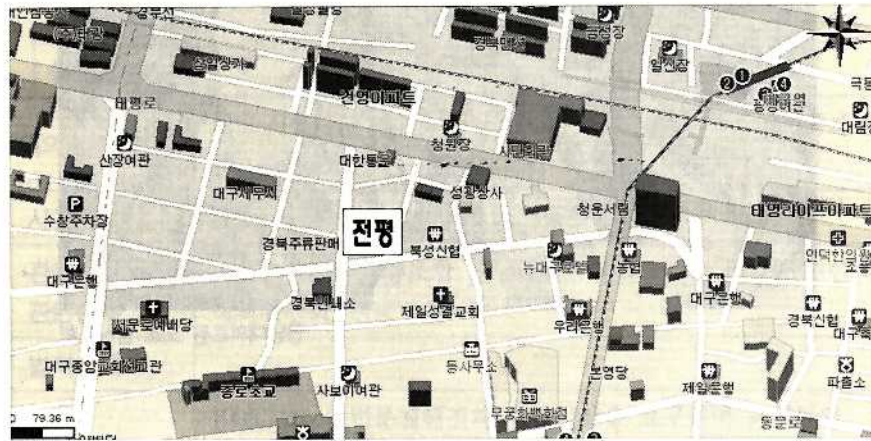
영남대의료원 노조 임시총회

5) 대구·경북지역 노동운동 주요 사적지

(1) 전평 대구지부 사무실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경북인쇄소 앞

□ 역사적 의의 : 해방공간 시기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대구지부 사무실, 1946년 9월 총파업, 10월 대구인민항쟁, 1947년 3월 파업, 1948년 2·7총파업 등



전평 사무실(현재)

(2) 북비산네거리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 역사적 의의 : 3공단, 이현공단 노동자 밀집지역, 1980년대 주요 노동운동단체 소재지(대구 노동자협의회, 일꾼의 집, 노동정책연구소, 택시노동자협의회, 가톨릭노동사 목 등), 1980년대 노동자시위 대표적 장소



비산네거리(1990년대)



북비산네거리(현재)

(3) (구)대구지방노동청 사무소

□ 위치 : 대구시 북구 대현동

□ 역사적 의의 : 주요 노동자 시위 장소, 1989년 노동청점거농성사건 현장



대구지방노동청 사무소 앞(1980년대)



대구지방노동청 사무소(현재)

(4) 대구시내 대구백화점 앞

□ 위치 : 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 174번지

□ 역사적 의의 : 주요 1980~1990년대 주요 노동자집회 장소



대구백화점 앞(현재)

(5) 3공단네거리

□ 위치 : 대구시 북구 노원동

□ 역사적 의의 : 1980년대 노동자 시위, 파업의 상징적 장소, 1986년 아신, 성화, 한국경전기 노동자투쟁, 1986년 노학연대시위 현장



3공단네거리(현재)

(6) 경북대학교 야외공연장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교내

□ 역사적 의의 : 1989, 1990년 남선물산 노조지원노학연대 투쟁, 대구지역 공동임금인상투쟁 본부 발대식 등 노학연대의 상징적 장소



경북대학교 야외공연장(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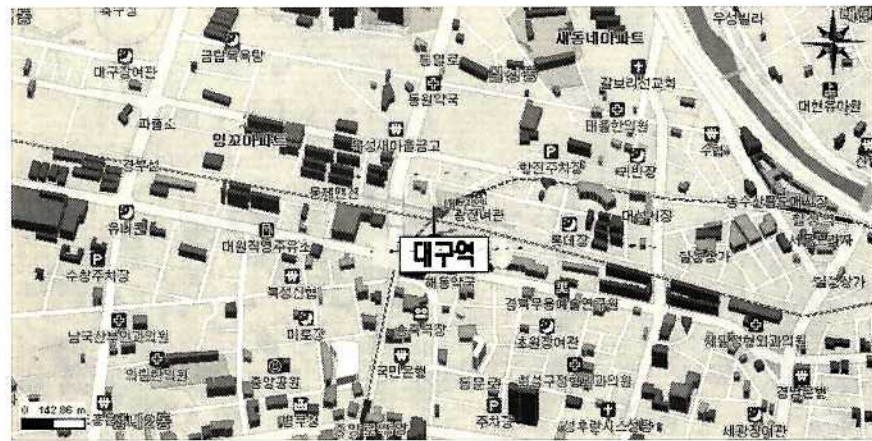


경북대학교 야외공연장 옛터(현재)

(7) 대구역 광장

□ 위치 : 대구시 중구

□ 역사적 의의 : 1946년 10월 항쟁, 1960년대 대구교원노조운동 등 1980년대 이전까지 대구지역 대중집회의 대표적 장소



구 대구역 광장



현 대구역

(8) 가톨릭근로자회관

□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 2가

□ 역사적 의의 : 1980년대 노동야학 운영, 가톨릭 노동사목 사무실 소재, 노동단체 주요 집회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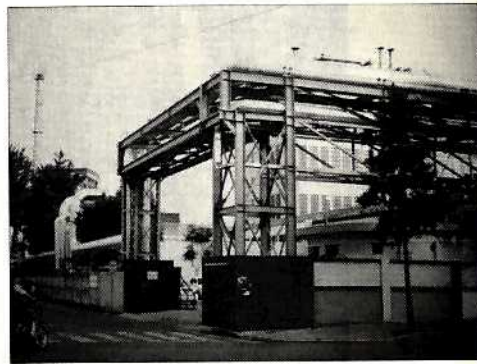
(9) 남선물산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비산염색공단 내

□ 역사적 의의 : 1990년 7월 굴뚝농성 투쟁은 전국적으로 민주노조사수, 전노협 사수투쟁의 투쟁의 모범으로 평가. 남선물산 노동조합은 1988년부터 1997년 노동조합해산에 이르기까지 대구지역 섬유사업장 민주노조운동의 상징.



남선물산(과거)



남선물산(현재)

(10) 포항 오거리

□ 위치 : 포항 시내 오거리

□ 역사적 의의 : 1987년 강원산업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오거리까지 행진 시위, 포항노동자들의 시가지 선전전 장소, 1996~1997년 노동법개정투쟁의 현장



포항 오거리(현재)

(11) 포항 형산로터리

□ 위치 : 포항제철 공단 진입로

□ 역사적 의의 : 1992년 해고노동자들의 40여 일간의 복직투쟁 천막농성장소, 1996~1997년 노동법개정투쟁 등 포항노동자들의 대표적 투쟁장소



포항 형산로터리(현재)